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설인물 지도방안

-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한 지 선

소설인물 지도방안

-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

강 진 호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한 지 선

인 준 서

한지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고에서는 소설교육의 실질적 대상인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 속 작중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인물파악 기준의 제시 및 그 각각의 유형에 따른 작중인물을 분류해 봄으로써 학습자인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응용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능동적 독자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형 분류 방법에 의거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작중인물 유형 파악과 함께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중인물을 분류, 파악할 수 있는 기량의 폭을 넓히기 위한 지도방법을 고찰해 봄으로써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교육화 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중인물의 유형을 파악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범주를 ① 성격의 변화 ② 작품의 주도적 이념 ③ 인물의 기질적 특성 ④ 전형성에 따른 기준 등 4개로 제시하고 작중인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설교육에서 작중인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둘째,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과서 수록 소설들을 예로 들어 소설 작중인물의 지도방안을 좀 더 현실화하였으며 특히 작중인물 유형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것의 배경이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현장에서 작중인물의 지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구조라는 틀의 개념을 활용하는 학습의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목표를 두고 ①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신분 ② 인물의 형상화 ③ 인물의 변모과정 ④ 갈등의 해결 등의 몇 가지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의 지도방법을 고찰하였다.

넷째, 실질적 지도방안의 구체적 예로 '읽기 전 활동'과 '읽고 난 후의 활동'을

작성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독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직접 접하게 되는 중·고등학교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의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소설교육에 있어 인물지도가 중요한 이유는 학습자가 작중인물의 행동과 성격에 대한 대리체험을 함으로써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기본적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며 모방 가능한 모형을 통해 성장기 학습자의 자아와 인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습자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지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소설을 이해함에 있어 1차적인 주체는 학습 당사자가 되겠지만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이해와 분석을 위한 방법과 과정의 제시는 지도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다뤄진 유형분석 및 구체적 지도방안 연구 모형의 제시는 현장학습에서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지도방법이라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차 례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의 방법	7
II. 인물의 유형 파악 및 범주	10
1. 성격의 변화 : 평면적 인물 / 입체적 인물	13
2. 작품의 주도적 이념 : 긍정적 인물 / 부정적 인물	22
3. 기질적 특성 : 내향적 인물 / 외향적 인물	27
4. 전형성 : 전형적 인물 / 개성적 인물	33
III. 인물의 유형에 따른 지도방안	39
1.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신분	39
2. 인물의 형상화	43
3. 인물의 변모과정	46
4. 갈등의 해결	48
IV. 결론	60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그 유한한 삶의 테두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 또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인간은 스스로 바라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찰하며 좀 더 나은 인간으로의 도약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내 자신이 정한 선(Out Line)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오류 또한 빈번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매개하며 간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간접 체험 혹은 매개의 수단으로 각종 영상, 전자, 인쇄 매체 등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 매개의 공통점은 내가 아닌 타인의 삶의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비교대상을 인식하게 하고 평가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바른 삶의 지표를 짐작케 해준다는 점이다.

그중에서 문학 특히 소설이라는 장르는 현재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비교 가능한 거의 모든 군상과 조건, 상황 등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에 무한한 날개를 달아줌과 동시에 독자로 하여금 깊이 있는 심적영상(Mental Image)을 가능케 한다.¹⁾ 그렇기에 학교에서의 소설 교육은 그것이 단순한 교육

1) 한편 본고에서 소설과 일상적 삶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소설의 직접적인 수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그리블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문학작품의 독자와 문학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거북스러운 것은 문학과 삶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 「죄와 벌」, 네4중주 등을 읽거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를 관람할 때, 나는 여러 가지 감동을 받게 되고, 통찰력을 경험하며, 전보다 더 알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허구적 인물 등에 삶에 연루되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 지식, 느낌, 연루감을 일상생활의 경험, 지식, 느낌, 연루감에 연결시키려 할 때 나는 좌절되고 확신을 잃게 된다.” 그리블, 나병철 역, 『文學教育論』, 문예출판사, 1987.

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의미 있는 이해활동으로서의 목적을 가져야 한다.

소설교육은 독자가 소설을 소설답게 읽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근본적인 이유에서 출발한다. 소설을 소설답게 읽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추측 가능하게 하며, 특히 '교육'이라는 전제가 붙고 보면 그것은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보다는 이론적이고 보편적이며 다소 획일화된 해석과 평가, 다시 말해 학습에 필요한 인식의 대상²⁾으로서 소설이 다루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소설교육의 틀을 깨는 일이야말로 현행 소설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소설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커다란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소설 교육과 관련해 그동안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몇 가지 주제로 묶어 보면 소설교육과 관련한 일반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로서 그 안에 소설교육 전반에 걸친 이론과 기본관념을 제시한 연구들³⁾과, 소설교육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정립하려는 연구⁴⁾, 그리고 소설교육을 위한 제제의 선정 문제를 다룬 연구들⁵⁾이 있으며 소설교육의 실천에 관한 연구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방법을 모색, 현행 교육체제 하에서 실제적으로 쓰여 질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한 논문들⁶⁾도 있다. 이러한 실제 지도방안과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

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2, pp.262-267.

3) 구인환, 『소설교육의 방법』, 난대 이응백 박사 고회 기념 논문집, 한샘, 1992.

김은진, 『국어교육과 문학교육』, 서울대 사대논총, 19집, 1979.

이향숙,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최운식 외, 『문학교육론』, 집문당, 1986.

4) 우한용은 연구에서 소설교육의 개념과 목적 및 목표,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화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현장에서의 실천적인 문제와 평가문제, 끝으로 내면화 문제까지 소설교육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소설교육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살펴본 연구로서 소설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이후의 소설교육 연구들의 토대가 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한용 외,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참고.

5) 유지현,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 작품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4.

우동식, 「문학교재 선정 기준의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6) 이천우, 「소설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박대호, 「소설의 세계관 이해와 그 문학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서 다루게 될 인물 유형별 지도방안 연구도 소설교육의 발전적 측면에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로드리게스⁷⁾는 소설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 ① 즐거움을 가지고 소설 읽기
- ② 소설독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 ③ 개인적인 독서에 적합한 소설 선별하기
- ④ 소설을 사실주의적, 로맨스 등으로 분류하기
- ⑤ 중요한 작품을 읽고 그 소설이 왜 좋은 소설인지 토론할 수 있게 됨
- ⑥ 소설에 나오는 특별한 주인공에 자신의 가치를 연계시키기
- ⑦ 소설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문제 해결적 대응)
- ⑧ 소설에 내재된 주제에 대한 확인
- ⑨ 작중인물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토론 가능
- ⑩ (단순히)소설을 소설로 읽는 개인적 목표 지양하기

위의 목표 중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⑥ 소설에 나오는 특별한 주인공에 자신의 가치를 연계시키고와 ⑨ 작중인물의 일관성 여부에 대한 토론 가능 여부에 관한 지적이다. 소설교육에 있어 작중인물의 일관성 여부를 가늠하고 그 주인공에 자신의 가치를 연계하는 일은 무엇보다 그 소설 전체의 맥을 이해하고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된다.⁸⁾

이는 작중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소설의 의미 형성의 주축이 된다고 한

지은미, 「소설교육 방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김인환, 『문학교육론』, 평민당, 1979.

7) R.Rodrigues & D.Badaczewski, A Guidebook for Teaching Literature, Allyn and Bacon, Inc., 1978, p.92.

8) 소설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참조할 만하다. 최시한은 소설교육의 이유를 ① 예술의 언어운용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② 상상력을 기르기 위하여 ③ 아름다운 감정과 진실된 가치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④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게 하기 위하여 등 네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학교육은 왜 하는가?」, 『모국어교육』, 제6호, 1988.5

최인자⁹⁾의 주장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최인자는 소설 속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 교육방법을 세웠는데 작중인물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에 놓임으로써 소설의 의미형성에 주축이 된다고 봤다.

한편 모든 이해지도의 기본 요구는, 학생은 읽기 체제를 의미 있게 이해하는 것이고 교사는 학생이 읽기 체제에서 의미를 찾기를 바라는 것이다. 단순한 전달 - 지시적 환경(Transmission environment)¹⁰⁾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해지도를 기대할 수 없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설이 갖는 무한적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소설의 가장 큰 위력이라고 한다면 비인간화로 치닫는 현대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성을 촉구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교육에서의 소설교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의 일환으로 소설교육에 대한 다방면의 모색이 이론과 실천 측면¹¹⁾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정작 소설의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작중인물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타 연구에 비해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의 소설교육이 소설텍스트의 의미를 단선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교육적 한계로 인해 소설이 갖는 형식 내지는 정형화된 텍스트 내에서의 주제 파악, 배경 인식, 구성 이해 등의 선에서 다뤄져 왔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소설의 배경과 주제, 성격 등을 가늠하는 판단의 기준이 소설속의 작중인물 유형과 무관하지 않음을 전제할 때,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이며 효과

9) 최인자가 제시한 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방법의 제안으로 첫째, 세계에 대한 주인공의 대결 양상에 따른 교재의 구조화와 둘째, 문체적 인물을 핵심 아이디어로 한 소설 독서방법, 셋째, 작중인물과 수용자의 거리조절에 의한 내면화의 과정 등을 들었다. 최인자, 「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 교육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10) 한철우. 천경록 『독서지도방법』, 교학사, 1999, p.28.

11) 소설교육의 목적, 실제 수업의 장에서 소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지도방법, 소설교육의 다양한 평가방법, 소설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의 모색 등의 연구가 비교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왔다.

적인 이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소설교육에서의 작중인물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설교육의 실질적 대상인 학생들로 하여금 소설 속 작중인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인물파악 기준의 제시 및 그 각각의 유형에 따른 작중인물을 분류해 봄으로써 학습자인 학생 스스로 주체적인 응용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능동적 독자(Active reader)¹²⁾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방법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작중인물의 유형에 대해 연구한 논문 중 이은순¹³⁾의 연구는 중학교 소설교육의 변천과정과 이에 따른 인물의 유형을 알아보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의 수용양상을 설문을 통해 소설 단원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경우 인물의 유형화와 소설 단원과의 문제점을 연결하여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 논점을 불분명하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선호¹⁴⁾는 구조적 관점에서의 지라드의 인간의 욕망구조, 의미적 관점에서의 로비 매콜리와 조오지 래닝의 성격화 이론을 적용하여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지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논문의 경우 구체적인 교수 - 학습 현장을 염두에 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박명옥¹⁵⁾이 소설 「소나기」에 적용시킨 이론 즉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들이 무엇이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중심

12) 일반적 교수(teaching)방법에 의하면 좋은 독자란 능동적 독자(active reader)라고 하는 원리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한철우, 천경록, 『독서지도방법』, 교학사, 1999, p.6.

13) 이은순, 「중학교 소설교육 교재의 인물유형 분석과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14) 진선호,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소설독해지도 방법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15) 박명옥, 「소설의 인물 지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으로 인물지도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한 점이나 서예인¹⁶⁾이 인물유형을 나누는 방법과 인물지도방법을 독특하게 제시하여 보다 근본적인 시도를 꾀한 점 등도 작중인물의 중요성을 상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편 위남준¹⁷⁾은 작중인물 형상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정균¹⁸⁾ 역시 6,7차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을 유형별로 분류 분석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위남준의 경우 작중인물의 형상화 양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도식적인 진행을 유도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김용성¹⁹⁾의 경우 근대소설을 중심으로 작중인물에 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였으며 김중신²⁰⁾ 역시 『소설감상방법론 연구』를 통해 작중인물에 대한 학습자의 연구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각기 나름의 장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교수 주체자로 하여금 이들 각각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소설교육 및 작중인물 유형파악과 관련한 연구 방향에 고무적인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된다.

16) 서예인, 「인물지도의 방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17)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 형상화 양상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형상화가 지니는 형질의 의미 및 그 형질이 어떻게 획득되는가 하는 문제를 리얼리즘 이론 중 상징화, 이상화, 전형화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다. 위남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 형상화 양상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18)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인물의 정체성 비교 연구」를 통해 제 6차 교과서 소설 속의 '정체성' 의미에 관한 논의와 함께 7차 교과서 수록 소설을 통해 자족의 정체성 및 국가와 민족 정체성 등을 논하였다. 이정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인물의 정체성 비교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19) 김용성, 『한국근대소설의 인물연구』, 도서출판 인동, 1986.

20) 김중신, 『소설 감상 방법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5.

3. 연구의 방법

앞서 지적하였듯 소설교육에 있어 작중인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각의 인물 유형을 파악하는 일은 소설구조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기제로 작용한다.

즉,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은 소설의 흐름을 주도하며 분위기와 톤을 결정하여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인물성격의 개념은 크게 도덕성(morality)²¹⁾과 개성(personality)²²⁾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항대립(binary opposition)적 사고²³⁾는 자칫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감수해야 한다. 즉 작중인물의 유형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 기준점이 애매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며²⁴⁾ 이러한 경우 분류자의 자의적 해석²⁵⁾에 따라 선과악의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건 전개에 따른 변화로 인해

-
- 21)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널리 사용된 개념으로, 그 인물이 선한지 악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에 따르자면 비극의 주인공은 본질적으로 선량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주인공의 불행은 독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도덕성은 현대소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감수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며 세상이 복잡화되어 감에 따라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 도덕적 선과 도덕적 악을 공유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독자들은 인물의 선악을 따지고 싶어 한다. 박혜경, 「소설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22) 개성으로서의 성격은 언어, 습관, 취미, 행동, 그리고 개인을 규정하는 온갖 복잡한 감정, 사상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개성으로서의 성격이 문학 특히 소설에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란 그만큼 다채롭고 흥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박혜경, 「소설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23) 흑백논리 혹은 이분법적 사고라고도 한다. 박명옥, 「소설의 인물지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24) 가령 성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의 경계가 모호한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며, 그러한 애매한 기준을 이론으로 구체화 할 근거나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유감으로 들 수 있다.
 - 25) 일반적인 기준에서 악으로 규정지어지는 행위가 이해주체자의 경험이나 성격, 환경에 따라 선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황순원의 소나기에서처럼 능동적이던 성격을 가진 소녀가 차츰 수동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과정 등을 주시혜볼 때, 인물의 유형을 다만 몇 가지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일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면적으로 이해되던 인물이 입체적 성격을 띠거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경우를 비취볼 때 기존의 이론에 모든 유형을 꿰어 맞춘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본고의 연구가 갖는 한계이자 앞으로의 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지는 연구 범위가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까닭에 본고에서 도출해 낸 연구결과만을 놓고 타당성 및 보편적 특성을 논하기엔 제약된 연구가 지니는 한계가 너무도 뚜렷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충실히 검토하며 그것이 지니는 장단점을 본고의 결과와 대입, 보다 바람직한 소설교육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할 것이다.

한편, 인물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은 작품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뉘는데 주동인물은 소설의 주인공이나 희곡, 시나리오 등의 주역에 해당하며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에 반하는 인물로 분류한다. 이를 다시 세분화 하면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 유형은 대부분 평면적으로 그려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면서도 소설이 배경으로 하는 시대와 사회의 총체적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성격 변화에 따른 분류로 평면적 유형과 입체적 유형으로 구분되고 성격의 특이성 여부에 따라 다시 개성적 유형과 전형적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II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유형 분류 방법에 의거 본고에서는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작중인물 유형 파악과 함께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기준으로 작중인물을 분류, 파악할 수 있는 기량의 폭을 넓히기 위한 지도방법을 고찰해 봄으로써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교육화 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게 될 범위는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중 그 유형이 비교적 분명하고 비교대상이 뚜렷한 혹은 혼동의 여지가 있는 인물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범위는 지극히 한정적인 14편 정도가 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작품과 인물 유형, 분류 기준 등을 나뉘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작품과 인물 유형, 분류 기준

인물유형	제목	중심인물	주변인물
성격의 변화	병어리 삼룡이 (나도향)	삼룡이	오생원, 오생원의 아들, 새아씨
	감자(김동인)	복녀	남편, 왕서방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경호 아버지, 김반장	고흥댁, 지물포 주인, 시내엄마
	두파산 (영상섭)	옥임, 정례모친	정례부친, 옥임의 남편, 전직교장
주도적 이념	태평천하(채만식)	윤직원	윤창식, 윤종수, 윤종학
	탁류(채만식)	초봉	정주사, 고태수, 장형보
기질적 특성	날개(이상)	나	아내
	표본실의 청개구리 (영상섭)	나	김창억
	동백꽃(김유정)	나	점순이
	수난이대(하근찬)	박만도	진수
전형성	감자(김동인)	복녀	남편, 왕서방
	운수좋은날(현진건)	김침지	아내
	삼대(영상섭)	조 의 관	조상훈, 조덕기, 김병화, 홍경애
신분과 배경	감자(김동인)	복녀	남편, 왕서방
	깨빼딴리 (전광용)	이인국	나미, 아내, 아들, 브라운
인물의 형상화	운수좋은날(현진건)	김침지	아내
인물의 변모과정	원미동 사람들 (양귀자)	경호 아버지, 김반장	고흥댁, 지물포 주인, 시내엄마
갈등의 해결	학(황순원)	성삼, 덕재	-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Ⅱ장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물 유형별 분류 기준을 제시한 후 그에 적합한 교과서 내의 작품을 선정, 예문을 통한 실제적인 유형 분류와 그 기준을 제시하고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작중인물의 유형별 분류와 관련 실제 학습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중인물 지도방안을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이론의 고찰에 머무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II. 인물의 유형 파악 및 범주

교육과정의 전체구조 속에서 문학교육 특히 소설교육은 일종의 응용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응용학문의 성격은 그 이론체계가 순수하고 단일한 학문성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다원적으로 복합된 여러 학문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면이 강하다. 이것을 소설교육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양태를 보이며 각각의 인물은 그 나름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등장인물을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보면 각각 일정한 무리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인물의 유형'(type) 혹은 인물형이라고 한다.

인물의 유형도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일 인물도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작중인물의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각각의 분류 결과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작품에서의 인물제시 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인물의 성격 및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요소를 찾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 및 제시화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는데 직접적 제시의 경우 작가가 직접 인물의 성격, 특색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반면 사건 진행을 방해하거나 독자의 상상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개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이 슬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흰렁 벗겨진 이마라든가, 술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 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 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 똥 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뽀족한 입을 양당 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²⁶⁾

위의 예문을 보면, B사감의 외모나 성격을 직접적이고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상상의 여지를 아예 차단시키고 작가의 의도에 따른 주입형태를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나도향의 「병어리 삼룡이」를 들 수 있는데 구체적 예문은 다음과 같다.

그 집에는 삼룡이라는 병어리 하인 하나가 있으니 키가 몹시 크지 못하여 땅땅보이고 고개가 달라붙어 똥똥이에 대강이를 갖다가 붙인 것 같다. 거기다가 얼굴이 몹시 얇고 입이 크다.

머리는 전에 새꼬랑지 같은 것을 주인의 명령으로 깎기는 깎았으나 불밤송이 모양으로 언제든지 푸 하고 일어섰다. 그래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옴두꺼비가 서서 다니는 것 같이 숨차 보이고 더디어 보인다.

동네 사람들이 부르기를 삼룡이라 부르는 법이 없고 언제든지 ‘병어리’, ‘병어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앵모’, ‘앵모’한다. 그렇지만 삼룡이는 그 소리를 알지 못한다.²⁷⁾

반면 간접적 제시는 그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상태를 표현함에 있어 등장인물에 대한 행동, 대화, 배경, 묘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 다음 예문에서처럼 등장인물의 나이, 이름 등의 제시와 더불어 배경과 환경을 통해 작중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나는 금년 여섯 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이고요, 우리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이렇게 단 두 식구 뿐입니다.

(중략)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스물네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너더러 ‘과부 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줄을 알지요.²⁸⁾

26)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한국단편문학전집 4권』, 동아출판사, 1995, p.162.

27)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한국 단편소설』, 민음사, 1990, p.106

28)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교과서 2-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p.221.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옥희라는 작중인물의 입을 통해 등장인물의 배경과 환경 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자는 구태여 작중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이러한 간접적 제시를 통한 이해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음 예문에서도 간접적 표현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애(아들)가 하도 질기다 싶어 해왔다. 뽕 맛은 없어도 귀한 거나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했을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보던 손녀도 그만 펴페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²⁹⁾

위의 예문을 보면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 모자의 성격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장가들어 사는 아들네 집에 처음 찾아온 화산댁이는 자기가 해 온 도토리 떡을 아들 며느리 손녀가 맛있게 먹기를 바라지만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들과 새 며느리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이들은 ‘일찍이 자소’ 라는 말로 모정을 외면하는 모습에서 화산댁이와 아들, 며느리의 성격까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소설에는 사회적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혹은 개개인의 주어진 특성에 기인하여 여러 가지 인물 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³⁰⁾ 이렇듯 유형의 의미범주는 주장과 맥락 혹은 선정 기준에 따라 매우 세분되거나 전형, 보편성의 개념과 혼용³¹⁾되어 ‘놀부’, ‘춘향’, ‘햄릿’ 등과 같은 매우 특정하고 고유한 인물만을 칭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연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교 소설교육에 있어서의 작중인물 유형 분류기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실제 작중인물과 연계되는 유형분류의 기준 및 범주를 짚어

29) 오영수, 「화산댁이」, 『한국 소설문학대계』, 36권, 동아출판사, 1995, p.49.

30) 서예인, 「인물지도의 방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31) 조남현의 경우 유형과 전형을 같은 의미로 쓰면서 전형의 창조가 성격창조의 가장 주된 방법이며 그 본보기로 ‘놀부’, ‘춘향’, ‘햄릿’ 등을 예로 들었다.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31.

보는 일이야말로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목적적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 다뤄지게 될 인물유형에 관한 커리큘럼은 다수의 소설을 지도하는데 유용한 즉 대개의 소설에 적용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에 적합한 인물형의 분류에서 오는 결과를 유추 가능케 하는 분류방법을 선택하여 그러한 분류기준으로 하여금 각각의 소설 속 작중인물이 지니는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응용 가능케 하는 교육적 지도방법으로서의 범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인물유형의 파악을 위해서는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 대상이 드러나는 성향, 이야기의 시간성, 소설의 현실 반영 여부 등의 측면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소설의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의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인물적 측면에서 성격의 변화, 작품의 주도적 이념, 기질적 특성, 전형성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1. 성격의 변화 : 평면적 인물 / 입체적 인물

소설 구조와 전개에 있어 작중인물의 성격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작중인물의 성격이 작품에 있어 이렇듯 중요한 변수로 매김될 때도 불구하고 분류의 결과가 매우 단순한 나머지 인물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미묘한 변화나 차이 등을 적절히 수용할 수 없이는 '성격적 변화'를 통한 인물 유형 분류법에 있어 커다란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의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 등장인물을 유형화하면 평면적 인물(flat character)과 입체적 인물(round character)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³²⁾ 평면적 인물이란 소설 전 과정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 입체적 인물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흥부전에

32) E.M 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 p.76.

서 흥부는 착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평면적 인물이고, 놀부는 끝부분에 가서 마음을 바로잡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입체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평면적 인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단일한 개념이나 성질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물이다. 즉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인물의 성격 유추를 어느 정도 가능케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구태여 다른 배경이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도 인물이 지니는 특이성으로 인해 학습자는 너무도 쉽게 심적영상(Mental Image)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나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이러한 때마다 병어리의 가슴에는 비분한 마음이 꼭 들어찬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아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병신인 것을 원망하였으며, 주인의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보다 이 세상을 저주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눈물은 나오려 할 때 아주 말라 붙어버린 샘물과 같이 나오려 하나 나오지를 아니 하였다. 그는 주인의 집을 버릴 줄 모르는 개 모양으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다.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 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기의 주인 아들이 때리고 찌르고 꼬집어 뜯고 모든 방법으로 학대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으레 있을 줄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픈 것도 그 아픈 것이 으레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요, 쓰린 것도 자기가 받지 않아서는 안될 것으로 알았다. 그는 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어떻게 해야 면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도 하여 본 일이 없었다.³³⁾

위의 예문을 봐도 알 수 있듯 삼룡이는 지능이 모자라는 귀머거리 머슴으로 오직 주인택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평면적 유형의 인물이다. 평면적 인물에게 보여지는 일반적 특성인 단순성³⁴⁾이 삼룡이에게도 보여지는데 그는 한결 같은 바보스러움과 우직함, 충성심 등을 극중 내내 유지한다.

33)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한국 단편소설』, 민음사, 1990, p.107.

34) 평면적 인물은 대개 천박/무식, 교양/젊음, 어눌/바보스러움 등의 한두가지 특성이 전체 이미지를 차지하는 만큼 그러한 일관성으로 인해 독자로 하여금 인물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학습자는 삼룡이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을 단적으로 판단할 기준을 확보하게 되며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삼룡이라고 하는 인물의 평가는 비교적 쉽게 결정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평면적인물의 특성은 소설 속에서 구체적인 성격묘사가 아니더라도 작중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조건 등을 넘지시 던져줌으로써 인물에 대한 성격 평가를 수월하게 행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누가 보더라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격 유형은 그러나 상황이 인물의 성격을 형성하였을 경우 현 상황의 종결 내지는 상황 자체의 변화 혹은 회귀는 극중 인물의 성격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느 유형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반면 입체적 인물 유형은 등장인물이 처한 환경이나 배경, 사건 등에 영향을 받아 인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인데, 포스터는 입체적 인물이 평면적 인물의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평면적 인물이 단일한 개념이나 성질을 중심으로 인물이 구성된다면 입체적 인물 유형은 '이 중 하나 이상의 요인이 작용함으로써 입체로 향하는 곡선이 시작되는 것'³⁵⁾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독자 스스로 평면적 인물을 한두 가지의 힌트만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입체적 인물을 구별해내고 설명하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입체적 인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도 인물이 겪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물의 유형을 변별할 수 있는 부연 설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입체적 인물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사건 혹은 상황을 거칠수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성격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미숙한 독자의 경우 인물 파악을 하는데 더욱 애를 먹게 된다.

입체적인 인물 유형의 예로 김동인의 소설 「감자」를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 작중인물의 행위나 심적 변화, 전반적인 성격과 배경 등에 현실성을 부여하고 독자로서 그러한 일련의 상황이 주인공의 성격변화에 미치는 요인 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복선을 제시한다.

35) E.M 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 p.76.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사농공상의 제이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솔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별 거벗고 개울에서 멍 감고, 바지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다섯 나던 해에 동네 오라비에게 팔십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팔십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³⁶⁾

위의 예문을 보면 작품의 배경과 작중인물의 성격,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복선의 구실로 본래의 인물 성격과 환경의 변화 등을 소상히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극중 복녀라는 인물이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 앞에 무너져가는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려감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글의 리얼리티를 느끼게 하고 작가는 작가대로 인물의 전형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작품 속에서 복녀는 비록 봉건적 성윤리 의식을 지니고는 있지만 가난이 그녀를 인부로, 다시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매춘녀로 전락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상습적인 매춘 행위는 '일 안하고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아서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인 것이다. 성 매춘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는 타락한 여성의 전형으로 드러난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원미동 사람들」³⁷⁾을 살펴보면 원미동이라

36) 김동인, 「감자」,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37)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연작 소설 작품 11편중 제 아홉편제인 「일용할 양식」이 교과서에 실린 전문이며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도 '일용할 양식'의 배경에 기인한다.

고 하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 벌어지는 각기 다른 인간군상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지리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들이 하나의 공간에 집약되어 생생하게 진행된다.

「원미동 사람들」의 작중인물은 역할과 신분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명칭, 사회적 직업적 신분으로의 명칭, 그리고 3인칭 대명사나 별명으로 불리는 형태 등이다. 대개 개별 작품에 있어서의 작중인물은 3인칭대명사 ‘그’ 혹은 ‘그녀’로 지칭되고, 기타 주변인들은 사회적 직업적 신분으로서의 명칭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명칭의 규칙성을 놓고 볼 때 작가는 이러한 호칭구조를 통해 작품의 전체적인 배경과 역할, 주제와 의미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이 이러한 작중인물들의 호칭에서 기인하는 소시민적 근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시민적 근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김반장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김포슈퍼와의 출혈경쟁도 마다않는 인물이며 또 다른 청과물가게를 몰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김포슈퍼 경호 네와 타협을 벌이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실리지상주의자의 면모를 톡톡히 드러내는 인물이다.

김반장은 이제 스물여덟의 역시 싹싹한 총각이었으며, 23통 5반을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는 반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동네의 잡다한 사건에 그가 끼이지 않는 법이 없었고, 원미동 거리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높다란 전라도 사투리도 틀림없이 그의 음성일 것이다.

(중략)

그의 형제슈퍼에는 네 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 팔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다.³⁸⁾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김반장의 성격은 본래 싹싹하고 의협적이나 실질적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김반장의 처지가 그로 하여금 억척과 독기를 품게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김반장의 성격은 다음 예문에서 더욱 확실히 반증된다.

38)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교육인적자원부, pp.90~91.

“김반장 그사람, 너무 악착스러워.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래 말야. 지 엄마한테는 왜 그리 툭툭거리는지 남들한테는 곧잘 싹싹하면서 지 부모한테는 얼굴 찌는걸 못 보겠더라구”³⁹⁾

(중략)

“지독해. 김 반장네 가게에선 앞으로 두부 한모도 사지 않을 거야.”⁴⁰⁾

이렇듯 김반장의 성격 형성은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속에서 악착이라는 행태로 표현되며, 이를 다시 말하면 김반장이야말로 소설의 내외적 비교에 견주어 봐도 이기적이고 편협한 전형적 소시민상인 것이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김반장의 억척같은 고투는 ‘원미동’이라고 하는 형식적 공간을 빌어 우리 사회 전체의 메말라 버린 세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 처음부터 그리 악착같고 이기적인 인물은 아니었던 바,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처지가 맞물려 그러한 성격형성을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반장의 상황이 어떤식으로든 변화한다면 그의 성격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며 이는 유형적 기준으로 볼 때 전형적인 입체적 인물로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성격의 변화는 주변인물 중 시내엄마의 성격변화에서도 드러나는데 전형적인 소시민의 모습 즉, 유한 상황에서는 너그럽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이나 정작 자신과 가족의 실리 앞에선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인간본연의 이기적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 속 전체적인 흐름을 타는 인물유형이라 하겠다.

특히 시내 엄마가 심심 청과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아파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을라구.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곳이 되냐? 그까짓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⁴¹⁾

39)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0~101.

40)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4.

“그런디 이번엔 시내네가 짝까 괴롭겠어야..”

고흥댁의 의미심장한 말에 여자들은 모두 시내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왜요?왜 우리가 괴로워요?”

시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글씨말여, 그 사람들도 딱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드만. 워낙이 배운기술이 그것뿐인당개 딱 장사를 할 리가 없제임”

“네에? 그럼 전파상이 온단 말예요?”⁴²⁾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 보여지는 시내엄마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며 배려심 또한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두 번째 예문에서처럼 자신의 가게와 생존경쟁을 하게 될 전파사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소문에 바로 입장이 바뀌어버린다. 시내엄마의 경우도 김반장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전형적인 입체적 인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두파산」에서의 김옥임 역시 입체적 인물의 전형적 유명이라 할 수 있는데 동경 유학시절에는 신여성 운동과 자유 연애를 하던 꿈 많은 여인이었으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나이 많은 도지사의 후실로 해방 후에는 남편이 반민범에 몰려 재산이 몰수될 것을 알고 고리 대금으로 살 길을 찾는 시류에 편승하는 인물이다. 정례 어머니와 대립되는 기회주의적 이기주의주의자로 돈에 모든 가치를 두는 근대적 성격의 입체적 개성적 인물이다.

다음은 김옥임의 입체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대목 중 일부이다.

스물 예닐곱까지 도쿄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 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 보았을까, 사십 전의 젊은 한 때를 도지사 대감의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 본 욕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사십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얇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맥 유한 마담으로 알 것이지, 설마 일 할, 일

41)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 105.

42)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7~108

할 오부능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
금업자야 누가 짐작이나 할까?

(중략)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
로 흘겨보고 입귀를 셀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 편
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리속이고 가
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화가 제
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
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이십여 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 면은 한 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무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는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
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
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
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은 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였다. 내년이면 공과대학을 나오는 맏아들애, 중학교애 다니는 어머니보
다도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 놓았
고, 남편은 편둥편둥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받아쓰고, 자동
차로 땅뵈기는 까불렸을망정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이라나 하는
데 조직 부장이니 훈련 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때를 만나면 아닌게 아
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팔구 삭 동안 장사를 하느
라고 매일 들러서 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꼴이란 아닌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 도 부러운 생
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마는,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
(道知事)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에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위인들인가? 그것
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관속에 한 발을 들여놓은 영감이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쪽쪽 뱉아 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
인 허우대 좋은 남편애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꼴 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부럽
고 저희만 잘된다는 것이 시기도 나는 것이였다. 보기 좋게 이년 저년을 붙
이며 한바탕 해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중의 시기였고, 공연
한 자기 화풀이였는지 모른다.⁴³⁾

시정에서 사소한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서민들의 세태를 그리며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정례 모친과 정신적으로 파산하는 옥임을 대비시켜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두과산」은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된 인간을 통한 해방 후 혼란한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돈 없는 선한 자는 있는 자에게 피해를 받는 물질만능의 세태를 꼬집은 작품이다.

김옥임의 경우 물질과 개인적 욕망을 위해 시류에 편승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입체적 인물로서 작품 전체적인 흐름이 치밀한 묘사적 문체로 인해 비교적 느리게 전개되는 것에 비해 김옥임의 입체적 변화의 특징들은 각개의 사건과 맞물려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입체적 인물 유형의 또 다른 예로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의 B사감을 들 수 있는데 처음 설명되어지는 특징은 못생긴 외모⁴⁴⁾에 까탈스런 성격, 남자 혹은 러브레터 등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히스테리컬한 여자로 묘사된다. 만약 이것이 주인공의 한결같은 특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평면적 인물 유형에 가까울 것이나 자신이 그렇게도 정색을 하고 거부 반응을 보이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몹시도 갈구하는 의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하나의 이미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와 갈구라는 이중적인 구조의 성격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입체적 인물 유형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중구조의 성격은 주인공이 원해서 그리 되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조건-못생기고 나이 많은 노처녀라는-에 의해 주인공으로 하여금 연애, 러브레터 등의 감정적인 결과물을 부정하게 하면서 한편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입체적 인물의 정의를 장점과 단점, 미덕과 악덕을 함께 갖추어 작품 속에서 환경과 사건의 진전에

43) 염상섭, 「두과산」, 『한국 소설문학대계』, 36권, 동아출판사, 1995. pp.155~156.

44) 사십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곱광 슬은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중략) 뽀족한 입을 양 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몹서리를 칠이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한국단편소설전집』, 민음사, 1990, p.83.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인물이라 해석한 구인환, 김홍규⁴⁵⁾의 정의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2. 작품의 주도적 이념 : 긍정적 인물 / 부정적 인물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그것의 옳고 그름, 선과 악, 진실의 유무 등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도덕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반면 소설의 인물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도덕률은 바로 작품의 '주도적 이념'⁴⁶⁾에 의하기도 하는데 작품의 주도적 이념은 작품의 의미구조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형상화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⁴⁷⁾ 어떤 인물이 긍정적 존재인가 부정적 존재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은 작품 내부적으로 볼 때 그것을 읽는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서술태도나 의도하고자 하는 관념, 작품의 진행 방향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즉 독자는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도덕률과는 별개로 작가 혹은 서술자가 의도하는 작품 내부의 논리적 표출에 의한 이념을 그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러한 기준에 의해 긍정적 인물 유형(주동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유형(반동적 인물)으로 분류된다. 가령 작품의 주도적 이념이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작품 내에서는 적어도 성리학의 이념에 합당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긍정적 인물이고 그러한 이념에 반하는 자는 부정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⁴⁸⁾

「신데렐라」에서는 순종적이고 선한 이미지의 신데렐라가 긍정적 인물이 되고 괴롭힘과 심술로 일관되게 그려지는 계모와 그의 딸들은 부정적 인물이 된다.

45) 구인환, 김홍규, 『고등학교 문학·하』, 한샘출판, 1995, p.136.

46) 최시한, 『가정소설 연구』, 민음사, 1993, p.40.

47) 서예인, 「인물지도방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48) 서예인, 「인물지도방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또 「홍부전」에서의 홍부와 「사씨남정기」에서의 사씨, 「춘향전」에서의 춘향이 등이 작가가 의도하는 전형적인 긍정적 인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가 가능한 이유는 독자가 다양한 양식의 이야기 구조를 접할 때 우선적인 기준으로 작중인물의 유형, 다시 말해 작품 내에 등장하는 인물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우선 판단함으로써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 가능하므로 작품의 흥미유발과 동기 부여를 위해서라도 독자는 인물 유형을 우선 판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류의 재미는 작가의 의도 가령 추리소설이나 심리소설에서처럼 내용의 반전과 더불어 독자가 임의로 분류해 놓은 인물 유형이 후반에 갑자기 변화하는데서 오는 충격과 놀라움이 극의 재미를 배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이러한 인물 유형의 분류는 작가가 충분히 의도한 절차일 수 있는데, 이는 독자가 작품을 읽으며 작중인물과의 동일시를 피한다는 점에 착안한다.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인간 주체의 행동을 시간적으로 분절하여 서술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좋은 문학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인상적인 작중인물과의 만남에 적극성을 띤다. 소설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근원적인 충동을 만족시켜줄 뿐 아니라 이렇듯 경험의 영역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큰 몫을 하며 소설을 통한 새로운 경험이란 결국 새로운 작중인물들과의 만남을 의미한다.

작중인물은 현실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인간의 전형과 더불어 비록 경험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할 수 있을 것 같은 짐작의 인간화를 작품을 통해 접하게 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독자는 작중인물을 실존하는 인간과 동일시하며 그들의 삶이 추구하는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작중인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소설이 작중인물과 작중인물이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서술해나가는 양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가가 바로 소설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소설의 사건은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전개되어 하나의 의미망을 형성하고 그 소설이 형성한 의미망은 다시 독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작중인물과 동일시를 경험하는데 특히 긍정적 인물에 대해서는 동정심과 측은함, 연민 등을 가지고 응원하며 부정적 인물과의 대립과정

에서 작중인물(긍정적 인물)이 추구하는 욕망과 가치 등이 성취되기를 고대하게 된다. 이는 긍정적 인물이 작가의 의도에 의한 환경에 있어 바람직하고 올바른 삶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독자는 자기 자신과 작중인물의 동일시 과정에서 미묘한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현실속의 인간과 너무도 흡사한 작중인물을 발견했을 때 그 인물의 행동과 변화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됨은 물론이고 그러한 변화와 갈등에 맞춰 독자 스스로의 감정 변화에도 크고 작은 동요가 생기게 된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심리가 선함을 추구한다고 가정할 때 모든 독자는 주도적 이념이 긍정하고 지지하는 인물이 되고 싶어 하며 그러한 인물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이 단순한 재미와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간접적 윤리교육의 효과까지 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소설 속에서의 부정적 인물은 대개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긍정적 인물을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진행되며 긍정적 인물이 독자로 하여금 지지를 받는 반면 부정적 인물은 긍정적 인물과 이미 동일시를 경험한 독자에게 외면과 질시의 대상이 된다. 부정적 인물은 대개 작품 내에서 반동인물로 형성되는데 부정적 인물이 주인공으로 그려지는 경우 그것은 작가의 의도된 연출로서 부정적인 인물이 갖는 부조리와 악함, 모순적 병폐 등을 주인공을 통해 보임으로써 사회 모순적 요소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가의 숨은 의도라 볼 수 있다.

대개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 유형은 그것이 갖는 특징 즉, 온갖 부조리와 모순적 병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악행 등의 성향이 좀처럼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복적이고 집요한 악행으로 인해 독자에게 비판과 질시의 대상을 넘어 희화화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채만식의 『태평천하』⁴⁹⁾를 보면 그러한

49) 채만식, 『태평천하』, 창작과 비평사, 1991.

『태평천하』에서 작가는 부정적 인물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하여 한말(韓末)과 개화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 대응에 따른 행동 유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바탕이 옳지 못한 가정이 어떻게 허물어져 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서 식민지 사회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생성되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려 하는 것 같다. 『태평천하』는 윤 직원 영감과 같은 부정적이고 타락한 인물에 대한 풍자가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풍자는 반어(反語, 아이러니) 수법을 통한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戲畫化)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즉, 작가는 작중

유형적 특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작중인물인 윤직원(본명 윤두섭)은 낮은 신분 출신으로서 치부(致富)에 성공하여 지주가 되며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다.

일제치하라는 어두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직 돈과 가문에 대한 집착으로 부정적 인물의 전형을 보이는데 이는 주도적 이념 - 손자 종학으로 제시되는 반일제, 건전한 생활의식, 조국의 희망적인 건설의지 -에 상극하며 비판과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최만식의 『탁류』⁵⁰⁾를 들 수 있는데 주인공이 현실의 부정적인 힘에 의해 자신의 이념을 좌절당하고 몰락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며 작가가 제시한 '식민지적 자본제의 파행성'⁵¹⁾에 충실히 접근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탁류』는 순결한 초봉이 결국 세태에 휩쓸려 타락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두취인소를 중심으로 그려지는 정태수, 성격파탄자 고태수, 곱추 장형보 등이 돈과 탐욕이라는 전도된 가치로 환경의 훼손된 논리를 추구하는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다. 이들은 투기라는 타락한 노동의 방식으로 생존하며, 덕성을 가지고 있는 초봉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

초봉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끄는 태수, 제호, 형보 등은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악행과 비도덕, 타락상이 점층적으로 강화되어 등장하고 있다. 특히 형보는 친구 태수마저 이용, 탐욕의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아내를 빼앗는 악의 화신으로서 등장하여 초봉이가 최악의 인격적 파탄에 이르도록 만드는 비도덕적 인물로 독자로 하여금 불신과 원망,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한편 『탁류』의 전개방식을 보면 부정적 인물을 소설의 전면(前面)에 내세우고 긍정적 인물을 후면(後面)에 두거나 희화화(戲畫化)하고 있는데 특히, 부정적

인물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드러내어 그 인물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추악한 일면을 폭로하고 있다. 부정적인 인물의 성격이 강할수록 풍자의 농도는 심해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의 경우는 윤 직원 영감이 그 중요한 풍자 대상이 되고 있다.

50) 최만식, 『탁류』, 창작과 비평사, 1991.

51) 최인자, 「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인물들은 더욱 치밀하게 묘사되거나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로 등장하며, 긍정적 인물들은 부정적 인물의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소심한 심성을 지니고 등장한다.

『탁류』의 경우, 정 주사·고태수·장형보 등의 부정적 인물들은 남승재·정계봉에 비해서 지나치리만큼 자세히 관찰되며 줄거리 전체를 압도한다. 그 결과 긍정적 인물들의 세계관은 희미하게 제시되는 반면에 부정적 인물들의 세계관은 날카롭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부정적, 긍정적 인간형의 중간 지점에 초봉이가 위치하고 있다. 이 소설은 2년여의 ‘탁류’ 속에서 그녀가 겪는 비극적 운명의 기록인 셈이다. 그 결말은 비극의 정점인 살인에까지 이른다. 그 과정은 대략 이러하다.

— 중농이었다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정 주사는 그 돌파구의 하나로 초봉에게 은행원 고태수와의 결혼을 강요한다. 효(孝) 사상에 밀린 초봉이는 이를 받아들인다. 타락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제 남편이 된 고태수와 살게 된다. 그러나 썩추 장형보의 등장으로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정조까지 유린당한 초봉은 과부 신세가 되어 예전의 상전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약국 주인 박제호에게 몸을 위탁한다. 하지만, 박제호 역시 타락한 인물이어서 초봉은 그의 첩이 되는 것으로 낙착된다.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첩살이 하는 동안 딸 송희를 낳아 고립된 행복이나마 가꾸어 나가던 초봉에게 장형보가 다시 나타나 자식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그녀의 가정은 다시 파괴되고, 자신의 운명을 파멸시킨 장형보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운명으로 곤두박질친다. 초봉은 장형보가 자신의 불행의 원인임을 깨닫고 형보를 죽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3의 비극이 되고 만다.

결국 이 작품은 당대 사회를 속악(俗惡)하기 이를 데 없는 ‘탁류’로 보고, 그 탁류에 휩쓸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살을 갉아먹고 있는 도시 하층민의 생활 방식을 고발하고 있다. 초봉이의 비극적인 삶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이 작품은 가난·싸움·투기·간통·흉계·횡령·탐욕·추행 등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절망감을 딛고 일어서서 당대 사회의 속악성(俗惡性)

과 대결할 것을 기약하는 계몽, 남승재 등의 새로운 인간상도 보여 준다. 마지막 장의 부제가 '서곡(序曲)'인 것은 '탁류'가 몰고 온 찌꺼기들을 씻어내고 맑은 물이 흐르는 시대가 오리라는 희망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3. 기질적 특성 : 내향적 인물 / 외향적 인물

심리학에서 쓰이는 인간의 분류법 중 작중인물의 분석에 대입할 수 있는 분류법으로 주관형과 객관형, 응집형과 역동형, 구체적 성향과 추상적 성향, 외향성과 내향성, 행동형과 사색형 등의 분류 기준법⁵²⁾을 들 수 있는데 용이 제시한 내향성과 외향성의 분류기준이 특히 소설의 인물 분석 과정에 자주 대입되어 왔다. 내향성은 객관 세계보다 주관 세계를, 세계보다는 자아에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서 침묵과 고독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고 극단의 경우는 지나친 아집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외향성은 대체로 사교적이고 밝으며 타인에 대해 호의와 호감을 보이는데 이들 성향의 분류 기준에는 인간의 사유, 감정, 감각, 직관의 네 단계의 능력심리와 연결된다.⁵³⁾

내향성이 드러나는 소설에서 형상화의 주된 대상은 인물의 내부 의식 세계이며 독백이 두드러지고 대인관계의 폭이 좁으며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중심을 이룬다. 성격적 특성도 매우 폐쇄적이어서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골몰함으로 스스로 스트레스와 고민을 만들어가기도 한다.

인물이 내향적인 경우 소설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정적이고 사색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높다. 서술자는 사건의 전개와 현실적 상황을 다루기보다 인물의 내적

52) '응집형'이란 내면 세계와 외계가 잘 조화되어 외계를 풍부하고도 광범위하게 수용해서 그 내용을 내면세계로 응집시키는 태도를 말하며 '역동형'은 처음부터 자기중심적이어서 내면세계와 외부세계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경우를 빚는 경우이다. '구체적 성향'은 삶의 세부사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데 반해 '추상적 성향'은 삶 속에서 보편적 논리적인 원칙이 있다고 믿으며 이를 지켜나가려 하는 식으로 삶을 영이해 가는 인물이다.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pp.142~143.

53) 서예인, 「인물지도방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갈등과 심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 때문에 그 진행형식은 일인칭 혹은 독백체의 서술형이며 다소 단조로운 진행으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이상의 「날개」의 한 부분이다.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아내는 외출한다. 외출할 뿐만 아니라 내객이 많다. 아내에게 내객이 많은 날은 나는 온종일 내 방에서 이불을 쓰고 누워 있어야만 한다. 불장난도 못한다. 화장품 냄새도 못 맡는다. 그런 날은 나는 의식적으로 우울해 하였다. 그러면 아내는 나에게 돈을 준다. 오십전 짜리 은화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에 써야 좋을지 몰라서 늘 머리맡에 던져 던져 두고 던져두고 한 것이 어느결에 모여서 꽤 많아졌다. 어느날 이것을 본 아내는 금고처럼 생긴 병어리를 사다준다. 나는 한푼씩 두푼씩 그 속에 넣고 열쇠는 아내가 가져갔다.

(중략)

아내에게 내객이 있는 날은 이불속에서 암만 깊이 들어가도 비오는 날만큼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그런 때 아내에게는 왜 늘 돈이 있나 왜 돈이 많은가를 연구했다. 내객들은 장치 저쪽에 내가 있는 것을 모르나보다. 내 아내와 나도 좀 하기 어려운 농을 아주 서슴지 않고 쉽게 해 던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 아내를 찾은 서너 사람의 내객들은 늘 비교적 젊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정이 좀 지나면 으레 돌아들 갔다. 그들 가운데는 펍 교양이 알은 자도 있는 듯싶었는데 그런 자는 보통 음식을 사다 먹곤 한다.

(중략)

나는 늘 옷 방에서 나 혼자서 밥을 먹고 잠을 잤다.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반찬이 너무 영성하였다.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말없이 주는 모이를 넘죽넘죽 받아먹기는 하였으나 내심 야속하게 생각한 적도 더러 없지 않다. 나는 안색이 여지없이 창백해지면서 말라 들어갔다. 나날이 눈에 보이듯이 기운이 줄어들어 갔다. 영양부족으로 하여 몸뚱이 곳곳의 뼈가 불쑥불쑥 내밀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차례 돌쳐 눕지 않고는 여기저기가 배겨서 나는 배겨낼 수가 없었다.⁵⁴⁾

위의 예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일관되게

54) 이상, 「날개」, 『한국 단편소설』, 민음사, 1990, pp.290~291.

일상과 내면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정보는 1인칭 서술자인 '나'를 통해 나오며 그 내용 또한 전형적인 내향성을 드러낸다.

주인공은 폐쇄된 공간에서 비활동적이며 '나'와 나의 일에만 몰두하는 나머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독자들은 마치 주인공을 둘러싼 사회나 대인관계⁵⁵⁾는 없고 '나'의 의식과 뇌만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예문으로, 염상섭의 작품 「표본실의 청개구리」 중 일부이다.

기뻐하리라고 한 Y의 편지는 오직 잿빛의 납덩어리를 내 가슴에 먼저 던져 주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여기저기 골라 가며 또 한 번 읽은 뒤에 편지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드러누웠었다. 음산한 방속은 무겁고 울적한 나의 가슴을 더욱더욱 질식케 하는 것 같았다. 까닭 없이 울고 싶은 증이 나서 가만히 누웠을 수가 없었다..... 나는 뛰어 방 밖으로 나섰다.

(중략)

나는 얼어붙은 눈 위를 짚신발로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R동 고개로 나서서 항상 소요하던 절벽 위로 향하였다.

사람 하나가 간신히 통행 할 만한 길 오른편 언덕에 거무스름하게 씩어서 문정문정하는 짙으로 에워싼 한간 집이 있고, 그 아래로는 비스듬하게 짓다가 둔 헛간 같은 것이 있다. 나는 늘 보았건만 그것의 본체가 무엇인지 아직껏 물어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삼층 양옥의 실화사건의 통지를 받고는 새삼스럽게 눈여겨 보았다. 나는 두세 걸음 지나가다가 다시 돌쳐서서 언덕으로 내려와서 사면팔방을 멍석으로 꼭 틀어막은 괴물 앞에 섰다.⁵⁶⁾

위의 예문을 보면, 이상의 「날개」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비슷한 맥락의 내향적 성향이 드러남을 알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이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행동의 진행과정을 서술자의 입장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내향적 인물의 특성상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정적이며 특히 심리적인 갈등과 변화의 추

55) 유일한 외부인이라고는 아내밖에 없는데 그나마 아내라는 인물조차 '나'라는 인물과 거의 차단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나'에게 있어 외부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매개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나'의 사회성은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해된다.

56)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한국 단편소설집』, 민음사, 1990. p.157.

이가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내향적 성향의 소설 작품 모두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내면적 변화와 갈등, 상황의 변화 등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와 반대의 특징을 보이는 외향적 성격의 인물형은 사교적이고 명랑하며 주변인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적극성을 띄는 주체적이고 참여도 높은 인물형이라 하겠다.

김유정의 「동백꽃」을 보면 우직한 인물의 전형으로 그려지는 '나'라는 인물과 달리 상대적으로 호탕하고 활발하며 개성적이고 적극적인 '점순이'라는 인물이 내용의 흐름을 주도 하는데, 다음은 「동백꽃」의 일부이다.

나흘 전 감자 쪄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떼루 하되?"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던 바른손을 뺏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쏙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어빠져서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젠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년째 되어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흉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⁵⁷⁾

위의 예문에서 보여지듯 무디고 순진한 '나'라는 인물에 비해 '점순이'는 상대적으로 적극성과 집요함, 활발함과 쾌활함을 갖춘 외향적 스타일의 인물로 대비된다. 내향적 스타일의 작중인물이 흐름을 진행하는 작품의 경우 분위기 자체가 정적이고 차분하며 감정의 작은 변화에 민감한 성향을 나타내는데 반해 외향적 스타일의 인물이 주가 되는 작품의 경우 그 흐름이 매우 경쾌하고 빠르며 동적인 경향을 띤다.

"진수야!"

"예."

"니 우째다가 그래 됐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심니꼬. 수류탄 쏘가리에 맞았심디."

"수류탄 쏘가리에?"

"예."

"음."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땀에 군의관이 찢라 버립디더. 병원에서 예. 아버지!"

"와?"

"이래 가지고 우째 살까 싶습디더."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기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57) 김유정, 「동백꽃」,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p.245~246.

살기사 왜 못 살아.”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놓니, 첫째 걸어 땡기기에 불편해서 똑 죽겠심디.”

“야야. 안 그렇다. 걸어땡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지대로 눌러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러니까예?”

“그렇다니,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 땡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대겠나, 그제?”

“예”

진수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 지긋이 웃어주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내 오줌이 마려워지는 것이다. 만도는 길가에 아무데나 쭈그리고 앉아서 고기 묶음을 입에 물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진수는,

“아버지, 그 고등어 이리 주소,”

하였다. 팔이 하나밖에 없는 몸으로 물건을 손에 든 채 소변을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볼일을 마칠 때까지, 진수는 저만큼 떨어져 서서 지팡이를 한쪽 손에 모아 쥐고, 다른 손으로 고등어를 들고 있었다. 볼일을 다 본 만도는 얼른 가서 아들의 손에서 고등어를 다시 받아 든다.⁵⁸⁾

위의 예문 「수난이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동백꽃」의 점순과는 다소 상이한 맥락에서의 긍정적 인물 ‘박만도’가 등장하는데 시대적인 아픔과 현실이라는 굴레 속에서 수난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함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인물의 기질적 특성인 내향성이나 외향성은 독자로 하여금 독서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것의 진행상황과 심적 변화, 내적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 등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작품 전체의 이해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8) 하근찬, 「수난이대」,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pp. 327~328.

4. 전형성 : 전형적 인물 / 개성적 인물

우리는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속의 작중인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와 공감할 때 동일시를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작중인물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할 수 없을 때는 작품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작가의 창작 의도나 학습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소설을 읽으면서 작중인물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그들의 성격과 작품 안에서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일은 그 자체로 충분한 의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근간에는 작중인물이 가지고 있는 혹은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특징, 즉 인물의 전형성(typical character)과 특수성(particular character) 즉 개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설속의 인물이 독자로서 하여금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형성과 개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데 인물 자체가 지닌 성격의 성향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⁵⁹⁾

전형적 인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혹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대변되며 개성적 인물은 말 그대로 특이성과 개성을 드러내는 인물 유형인데 이 두 가지 유형을 결코 대립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집단이나 계층, 혹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개성적이고 특이한 성격을 지닌 인물의 유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대립구도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전형적 인물의 유형적 예, 즉 '놀부', '심청이', '춘향이' 등의 전형적 인물의 유형들은 딱히 전형적 인물이라고 단정 짓기에 모호한 감이 없지 않다. 이 인물들의 경우 대개의 소설 속 인물들이 그렇듯 개인으로 존립한다기보다 모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의 대리물로서 부각되는 상위의 성격만이 강조되고 혹시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특이성과 개성적 성향 등은 아예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들 인물은 전형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 인물 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⁶⁰⁾

59) 구인환, 김홍규, 『고등학교 문학·상』, 한샘출판, 1995, pp.136~137.

60) 조정래에 의하면 「메밀 필 무렵」의 주인공 허생원은 개성을 뚜렷이 지니지 못하는

전형적 인물은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관련성을 지닌 채 계급적 특질이나 계급이 지니는 성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현실성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전형적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 리얼리즘 소설이 자주 이용되는데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역사적 환경 상황은 인물의 행위 있어 보다 신뢰를 갖게 하고 전형적 상황에서의 인물의 형상화 역시 높은 현실성을 토대로 전형적 인물의 특징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동인의 소설 「감자」를 보면 가난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 작중인물의 행위나 심적 변화, 전반적인 성격과 배경 등이 변화한다는 점에서 볼 때 성격적인 변화에 의한 입체적 유형으로의 분류가 가능한데, 한편 개인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에 개입된 시대적 환경적 상황과 '가난'이라고 하는 계급적 상황이 복녀의 성격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비극은 잘못된 사회구조와 해체된 윤리의식에서부터 기인하며, 그녀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이미 적나라하게 노출된 인물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즉 성격적인 측면에서 입체적 유형으로의 분류가 타당한 반면 사회적 역할과 그 비중 정도를 놓고 볼 때 추가적인 해석, 다시 말해 가난 앞에서 비굴해지는 전형적 인물 유형으로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칠성문 밖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는 복녀의 부처는(사농공상의 제이위에 드는) 농민이었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물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별 거벗고 개울에서 먹 감고, 바지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

인물로서 자신의 처지에 만족 또는 불만족 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견해 없이 하룻밤 추억에 얽혀 살아가는 인간의 유형이다.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특성이 사장되고 환경의 흐름에 편입된다는 점에서 개성과 사유 없이 살아가는 인물은 보편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플롯을 지배하지 못한다.

조정래,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2001, pp.41~46.

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다섯 나던 해에 동네 오라비에게 팔십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년이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지기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팔십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⁶¹⁾

작가의 입장에서 칠성문 밖 빈민굴은 도덕성과 윤리의식도 없는 그저 가난하고 추악한 공간임을 전제로 그곳에 내몰린 복녀로 하여금 성 정체성의 해체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설정을 통해 타락한 여성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가난’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전형으로 들고 있는 예는 「운수좋은날」의 ‘김침지’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작가는 극도의 궁핍과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희망 없는 나날을 살아가는 일제하 하층민의 생활상을 ‘김침지’라고 하는 인력거꾼을 통해 그리고 있으며 주인공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는 전형적인 하층민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여 쓰려면 못쓸 바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기의 신조(信條)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듯이 누워 가지고 일어나기는커녕 새로 모로도 못 늙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기는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좀 쌀 한 되와 십 전 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침지의 말에 의하면, 오라질년이 천방지축(天方地軸)으로 남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체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손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에 주먹덩이 같은 흑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땅긴다, 배가 켩긴다 하고 눈을 홉뜨고 지랄을 하였다. 그때 김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61) 김동인, 「감자」,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에이, 오라질년,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병, 어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루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 번 후려갈겼다.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다.

“이런 오라질 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중략)

김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똑 떨어진 행랑방 한 칸을 빌어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일 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침지가 주기를 띠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靜寂)---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 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러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깨뜨린다느니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뻑뻑거리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젓 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뻑뻑소리는 빨 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젓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젓을 빨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중략)

“이년아, 죽었다단 말이나, 왜 말이 없어?”

“.....”

“으응,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보이.”

이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정만 바라보느냐, 응”

하는 말끝엔 목이 메어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어롱어롱 적시었다. 문득 김침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데 비벼대며 중얼거렸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⁶²⁾

이 작품은 『개벽』 48호(1924.6)에 실린 소설로서 일제 치하 하층민들의 궁

62) 현진건, 「운수좋은날」,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pp.283~287 참조.

핍상을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목 '운수 좋은 날'은 가장 비극적인 날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외면적 행운 뒤에 비극적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작품 서두에 제시되고 있는 날씨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에게 다가올 불행을 암시하는 복선(伏線)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가 내리는 암울한 분위기와 첫 행운, 그 행운 뒤에도 계속되는 돈벌이, 그러나 뭔가 불길하다는 예감 등 상반된 상황의 연속을 거쳐 술집에서 주정하다가 설령탕을 사 들고 귀가한 뒤 아내의 참혹한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작품의 골격이다. 구성면에서는 시간적 순서에 의한 진행적 구성을 택하였으며, 표현의 경우는 작중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제시하여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묘사와 서술, 그리고 대화의 교체를 통한 다양한 문체가 돋보이며, 많은 비속어를 대화 속에 삽입하여 하층민의 생활 감각을 살리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다.

특히 '가난'이라고 하는 궁핍한 현실 속에서 하층민이 겪는 고통을 김첨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리얼하게 표현함으로써 작가가 의도한 전형적 인물 그리기가 충실히 지켜진 듯 하다.

또 다른 예로 염상섭의 『삼대』⁶³⁾를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와 김병화 라고 하는 3세대의 인물들을 통해 세대별 전형을 피하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둘러싼 당대 세대간의 차이와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의 전형성을 살린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삼대』는 1931년 1월 1일부터 그해 9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장편 소설로 만석꾼인 조씨 일가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각기 다른 가치관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린 소설일 뿐만 아니라 당대 조선의 사회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에서의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고 있지만 세대 간의 서로 다른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가족사 소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삼대』에는 두 갈래 삶의 흐름이 보인다. 그것은 덕기네 집안의 조 의관 부

63) 염상섭, 「삼대」, 문학 사상사, 1991 참조.

자가 구현하고 있는 현실 추구적, 소비적 삶의 양상과, 한편으로는 김병화가 하숙 들어 있는 필순네 가족을 통해서 또 덕기와 병화 사이의 교량적 구실을 하는 흥경애를 통해서 보여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체제 지향적인 이념적 삶의 양상이다. 이것은 당시 억압적인 식민지 현실에 대처할 전형적인 삶의 양식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갈등이 나타난다. 우선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이다. 조 의관과 상훈 사이의 갈등은 보수와 개화라는 이념상의 갈등에서 시작하여 재산의 상속을 두고 심화된다. 상훈과 덕기의 갈등도 표면적으로는 흥경애를 둘러싼 도덕적인 문제인 듯하나, 재산권의 상속을 둘러싼 대립이란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가족 간의 갈등의 축이 되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병화를 중심으로 한 계층 간의 갈등은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김병화는 타락한 중산층의 삶은 물론 이를 조장하며,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식민지 질서 전체에 대하여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조 의관, 상훈 등과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서 마르크스주의자인 피혁을 추종하여 지하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다.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세 사람은 제각기 문제점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 조 의관은 봉건적인 사고와 인습에 젖은 구세대 인물로, 젊은 후처에게 아들을 기대하는 탐욕의 인가이다. 그의 아들 상훈은 유학을 다녀온 기독교 신자이나, 애욕(愛慾)과 축첩(蓄妾)의 이중생활에서 재산을 탕진하기만 하는 무기력하고 의지력 없는 인물이다. 그의 아들 덕기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나, 가정의 불안함 속에서 재산을 지키는 일에만 그의 역할이 한정되고, 현대 소설의 주인공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소극적이고 미적지근한 우유부단형의 인물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새로운 세대인 덕기나 병화 등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과 역사적, 사회적 변동 속에서의 세대교체의 실상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의 의의를 구할 수 있고 아울러 리얼리즘 문학으로서의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작품의 전형성을 더욱 살린다고 할 수 있겠다.

III. 인물의 유형에 따른 지도방안

본고에서는 현장에서 작중인물의 지도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학습자의 인지구조라는 틀의 개념을 활용하는 학습의 인지과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범주를 제시함으로써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의 지도방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신분

작품에 있어 배경이 되는 사회적, 환경적 배경은 작품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매개가 되며 아울러 작중인물의 성격지표(character-indicator)⁶⁴를 가늠하는 다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가난’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등의 환경적 요소, ‘일제 강점기’등과 같은 사회 역사적인 요소 등은 작중인물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충분하며 그러한 사회적 역사적 환경 요인이 작중인물의 배경과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이미 앞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기에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 작중인물이 처한 사회 역사적 지리적 환경을 파악하는 일은 인물의 주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제반문제, 행위에 대한 동기 등의 원인을 짐작하고 유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예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 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딴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율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서 자라난 복녀는 물론 다른 집 처녀들같이 여름에는 별 거벗고 개울에서 떡 감고, 바지바람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예사로 알기는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기

64) S.리몬 케넌,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1999.

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열다섯 나던 해에 동네 오라비에게 팔십원에 팔려서 시집이라는 것을 갔다. 그의 새서방(영감이라는 편이 적당할까)이라는 사람은 그보다 이십년이 나 위로서 원래 아버지의 시대에는 상당한 농민으로 밭도 몇 마지가 있었으나 그의 대로 내려오면서는 하나 둘 줄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복녀를 판 팔십원이 그의 마지막 재산이었다.

(중략)

“복네! 애, 복네!”

“왜 그릅네까?”

그는 약통과 집계를 놓고 뒤로 돌아섰다.

“좀 오나라”

그는 말없이 감독 앞에 갔다.

“애, 너 음..... 데 뒤 좀 가 보자”

“뭘 하세요?”

“글세 가야...”

“가디요 형님!”

그는 돌아서면서 부인들 모여 있는 데로 고향쳤다.

“형님두 감세다”

“싫다 애, 돌이서 재미나게 가는데 내가 무슨 맛에 가겠니”

복네는 얼굴이 새빨갭게 되면서 감독에게로 돌아섰다.

“가보자”

감독은 저편으로 갔다. 복녀는 머리를 숙이고 따라갔다.

“목네 도캣구나”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갭게 되었다.

그날부터 복녀도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의 한 사람으로 되었다.⁶⁵⁾

위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본래는 그리 되바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도덕적 교육도 받은 복녀라는 인물이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로 인해 인부를 거쳐 몸을 파는 매춘녀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빈민촌은 곧 그녀의 신분을 말해주는 구실을 하기도 하며 인물의 전형성을 결정지어주는 매개로 작용하기도 한다.

65) 김동인, 「감자」,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작품 서두에 제시된 생활 공간으로서의 배경은 이후의 사건에 대한 어떤 예감을 제공한다. 즉, 칠성문 밖 빈민굴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부재(不在)하는, 정상적인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등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일 수밖에 없다. 복녀 내외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은 가난과 남편의 게으름 때문이다. 원래는 선비의 가통(家統)을 이은 집안의 딸이라 염치도 알고 경우도 아는 복녀였지만, 가난 때문에 밥을 얻으러 다니기도 하고 송충이 잡는 일에서부터 몸을 팔기 시작한다. 가난이 복녀의 행위를 이끌어 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왕서방과의 관계에서는 변질된 복녀의 인간성과 남녀간의 치정(癡情)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비극적 결말을 보게 되지만, 그 비극의 근원적인 원인은 복녀가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온 것이다. 복녀의 비극적 죽음은 이미 서두의 배경에서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그녀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 전광용의 「꺼삐딴리」를 들 수 있는데 시류와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 변질적으로 순응해 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해방과 6·25를 전후한 1940~1950년대라는 시기적 설정과 북한과 남한이라고 하는 공간적 설정이 맞물려 이러한 배경이 곧 인물의 신분을 대변하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이인국'은 상업적인 외과 의사로서 인술보다는 권력에 기생하고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자이며,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해 가는 변신술에 능한 (카멜레온을 닮은) 기회주의자로서 지조나 신념,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변질적 순응주의자이다.

일제 시대 이인국은 자식들을 일본인 학교에 보내어 일본어만 쓰게 하여 철저한 친일분자로 지나다가 광복이 되어 북쪽을 소련군이 점령하게 되자 러시아어와 자신의 의술로 소련군 장교에게 환심을 사고, 아들을 소련으로 유학 보낸다. 또한 월남해서는 미 대사관에 붙어 아부하고 친미주의자가 된다. 작가는 이인국 박사의 이러한 인물됨을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방법을 적절히 섞어 잘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주인공의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시대적인 배경

에 있으며 그러한 시대상황이 다시 주인공의 신분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4 후퇴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셋방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지에 타일을 바른 2층 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인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셈속이었지만,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

(중략)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이십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38선을 넘어온 피난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 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피행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伴侶)이기도 한 것이다.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었다. 이 시계는 제국 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뒤편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삼십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이십대 흥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 시대, 소련국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삼팔선, 미군 부대, 그 동안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는 습성처럼 째각째각 소리에 귀기울이는 때의 그의 가느다란 눈매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각모(角帽)와 쓰메에리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 없는 것이었다.⁶⁶⁾

66) 전광용, 「꺼삐딴리」,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pp. 155~157.

위의 예문을 보면 이미 작품의 배경과 작중인물의 신분이 대부분 드러나 있다. 인물의 동선 파악에 있어 주제와 밀접하게 작용하는 시대적 공간적 배경의 이해는 글의 흐름에 있어 작가가 의도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설정영역, 인물의 행동 반경과 성격 형성의 기제 등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 인물의 형상화

작중인물⁶⁷⁾ 구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S. 리몬케넨은 직접한정(direct definition), 간접제시(indirect presentation), 유비(analogy) 등의 세 가지 지표를 제시한다.

이들 세 가지에서 발견되는 성격지표를 한데 모으고 종합하여 특성을 추출함으로써 학습자는 인물 형상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된다.⁶⁸⁾

인물에 대한 직접한정은 믿을만한 서술자 또는 화자가 제시하는 형용사들이며 대개 작가는 인물을 제시함에 있어 직접한정과 간접제시, 유비의 방법을 섞어서 활용 한다.

작중인물에 관한 형용 방식은 인물의 이름(고유명사)을 포함하여, 인물의 외양과 성격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거나 주변 인물이 말하는 것 또는 독자가 유추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작중인물을 둘러싼 배경에 관한 형용사에서 작중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유비관계에 의한 표현들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작중인물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실제 행동 사이에 커다란 차이

67) S. 리몬케넨이 설명하는 작중인물은 추상된 스토리 내의 하나의 구조물로서, “여러 성격 특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조직체”이다. 이 구조물(작중인물)은 텍스트-연속(text-continuum)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 여러 성격 지표를 한데 모으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들로부터 특성을 추측해 냄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리몬-케넨이 인물구성에서 규명해 내려는 것은 성격지표(character-indicator)이다. S.리몬 케넨, 『소설의 현대시학』, 예림기획, 1999. p.109.

68) 서예인, 「인물지도의 방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면 작중인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물의 형상화 과정에 있어 그 주체-형용사-는 작중인물의 이름(고유명사)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인물의 발언을 통해 전달될 수도 있으며 작중인물의 외양과 성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것을 유추해 내는 주체는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작중인물 지도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인물의 형상화 과정을 유추함에 있어 인물을 지적하는 단순한 설명이나 단어, 이름 즉 다시 말해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형용사들 외에 그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관련한 형용사에까지 영역을 넓힘으로써 인물의 형상화 과정이 단순한 지시적 설명적 의미가 아닌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유추⁶⁹⁾ 과정이어야 함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차적으로 보여 지는 형용사적 의미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그것이 추후 작품의 전반적인 흐름과 어떻게 맞물려지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유추에서 빛나갔는지를 스스로 지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평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가령 김동인의 감자에서의 ‘복녀’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여 지는 1차적 느낌은 복스럽고 참하며 여성스러운 인상을 연상케 한다. 이것이 1차적 형용사 기술이지만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복녀’는 이름과 달리 가난에 지친 채로 스스로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성의식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몸을 파는 매춘녀로서의 이미지가 부각이 된다. 이러한 이미지의 변화는 단순한 인물 성격의 변화라기보다는 ‘가난’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본적 양심도 버리길 바다하지 않는 인물의 전략 과정을 주목해야 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형용사적 의미만을 이해하는 오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9) 로비 메콜리와 조오지 래닝의 ‘성격화 이론’에 제시된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외모, 동작, 습성, 말씨, 자신에 대한 태도, 환경, 작중인물에 대한 태도, 과거, 외번기법 등을 들 수 있다. 로비 메콜리, 조오지 래닝, 김병욱 편, 최상규 역, 「인물구성」, 『현대소설의 이론』, 대방출판사, 1983, pp.256~285.

또 앞서 살펴보았던 「운수좋은날」의 경우 형용사적 이미지로만 생각할 때 그것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리라고는 감히 생각하기 어렵다. 다만 작품의 발단 단계에서 이미 몇 가지 결말을 유추할만한 힌트를 제시하기 때문에⁷⁰⁾ 작품의 제목과 결말이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독자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인공 김침지의 외양과 성격 묘사에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 즉,

‘노르탱탱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있대야 턱 밑에만 마치 솔잎송이를 거꾸로 붙여 놓은 듯한 김침지의 풍채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이런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을 하게’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루 보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느냐, 응?’⁷¹⁾

등의 예문을 보면 김침지의 생김새를 직접적인 설명으로 표현했으며 성격 묘사에 있어서는 욕설과 비속어를 난무함으로써 고단하고 힘든 하층민의 하루살이 같은 고통을 간접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작중인물과 관련된 형용사를 모으는 과정에서 인물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말 뿐 아니라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형용사에 주목을 할 수도 있고, 이름이 주는 어감이나 제목이 주는 뉘앙스를 토대로 앞으로의 전개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고 그것이 결과와 어떤 연계를 갖는가 하는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인물 유형과 관련한 좋은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70)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울듯 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 비가 추적추적 내 이었다’ 현진건, 「운수좋은날」,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p.283.

71) 현진건, 「운수좋은날」,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3. 인물의 변모과정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 작중 인물의 변모과정을 파악하는 일은 인물 유형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일이자 앞서 살펴본 인물의 형상화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인물 지도가 요구된다.

포스터가 분류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의 가장 큰 구분점이라고 한다면 단연 성격의 변화 유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평면적 인물의 가장 큰 특성은 작품 내에서 단일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소설의 시작과 끝에서 사회적 환경적 혹은 역사적 변화에 있어서도 작중인물의 성격은 일관되게 유지된다. 반면 입체적 인물은 소설 내에서 성격구조 자체가 상당히 가변적이며 여러 가지 사회적 역사적 주변적 상황에 매우 민감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는 이러한 작중인물의 변화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작중인물의 변덕으로 성격자체가 변화되진 않으며 그 배경에는 언제나 작품의 주제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을 대함에 있어 작중인물의 특성과 변화를 유추하고 가늠하는 일은 곧 그 작품 자체의 이해를 꾀하는 행위로 풀이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이용해 작중인물의 변화양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물의 변화과정에 있어 그 매개가 되는 변수 혹은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데 앞서 예문으로 살펴보았던 복녀의 경우 평범하고 도덕적이던 그녀가 갑자기 변모하는 데엔 사회적 환경적인 배경 즉 가난이라고 하는 무시못할 벽 그리고 여기 더불어 대담성과 뻔뻔함, 엇나간 질투심이라는 요소까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원미동 사람들」에서의 김반장 역시 자신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라면 김포슈퍼와의 출혈경쟁도 마다않는 인물로 부각되며 또 다른 청과물 가게를 몰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김포슈퍼 경호 네와 타협을 벌이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실리지상주의자의 면모를 톡톡히 드러내는 인물이다.

김반장은 이제 스물여덟의 역시 싹싹한 총각이었으며, 23동 5반을 손바닥 안에 꿰뚫고 있는 반장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동네의 잡다한 사건에 그가 끼이지 않는 법이 없었고, 원미동 거리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높다란 전라도 사투리도 틀림없이 그의 음성일 것이다.

(중략)

그의 형제슈퍼에는 네 명의 어린 동생과 다리골절로 직장을 잃은 아버지와 잔소리가 많은 어머니, 또 팔순의 할머니가 매달려 있었다.⁷²⁾

(중략)

“김반장 그사람, 너무 악착스러워. 젊은 사람이 어찌 그리 인정머리가 없을까?”

“그래 말야. 지 엄마한테는 왜 그리 툭툭거리는지 남들한테는 곧잘 싹싹하면서 지 부모한테는 얼굴 찡그려 못 보겠더라구”⁷³⁾

(중략)

“지독해. 김 반장네 가게에선 앞으로 두부 한모도 사지 않을 거야.”⁷⁴⁾

위의 예문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원미동 사람들」의 김반장이 처음부터 그리 악착같고 이기적인 인물은 아니었던바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처지가 맞물려 그러한 성격형성을 유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반장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한다면 그의 성격 또한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성격의 변화는 주변인물 중 시내엄마의 성격변화에서도 드러나는데, 전형적인 소시민의 모습 즉, 유한 상황에서는 너그럽고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이나 정작 자신과 가족의 실리 앞에선 자신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인간본연의 이기적 모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 속 전체적인 흐름을 타는 인물유형이라 하겠다.

특히 시내 엄마가 심심 청과물의 폐업을 가장 가슴아파했다.

“오죽하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벌였을라구. 이 동네가 어디 장사해서 돈 벌

72)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 교육인적자원부, pp.90~91.

73)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0~101.

74)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4.

곳이 되냐? 그까짓 같이 좀 먹고 살면 어때서 너무 잔인해”⁷⁵⁾
 “그런디 이번엔 시내네가 짝까 괴롭겠어야..”
 고희택의 의미심장한 말에 여자들은 모두 시내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니 왜요?왜 우리가 괴로워요?”
 시내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글썸말어. 그 사람들도 딱 작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드만. 워낙이 배운기술이
 그것뿐인당게 딱 장사를 할 리가 없제잉”
 “네에? 그럼 전파상이 온단 말예요?”⁷⁶⁾

위의 첫 번째 예문에서 보여 지는 시내엄마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며 배려심 또한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던 것이 두 번째 예문에서처럼 자신의 가게와 생존경쟁을 하게 될 전파사가 들어설지 모른다는 소문에 바로 입장이 바뀌어버린다. 시내엄마의 경우도 김반장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른 성격의 변화를 보이는 전형적인 입체적 인물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두과산」⁷⁷⁾에서의 김옥임의 입체적 성격유형과 나도향의 소설 「병어리 삼룡이」의 주인공 병어리가 평면적 유형 역시 인물의 변모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적절한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원인들을 놓치지 않고 유추하는 일은 독자로 하여금 그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이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갈등의 해결

한 작품 내에서 작중인물과 그 배경을 둘러싼 갈등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인물의 성격 전반과 작품의 흐름 나아가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인지과정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주역을 맡은 인물(주동인물)과 주변인물(반동인물)이 서로 상이한

75)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5.

76)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pp.107~108

77) 염상섭, 「두과산」, 『한국 소설문학대계』, 36권, 동아출판사, 1995.

입장과 환경에서 갈등구조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구조의 해결 양상에 따라 작중인물의 도덕성과 성향이 유추되며 극의 흐름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 상당한 배경 역할을 하게 한다.

작품에서 보이는 심리적 갈등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용납 가능성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으로 사건에 대한 내적 반응의 진행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갈등구조의 해결 과정에서 내리는 선택은 작품의 대체적인 흐름을 주도할 뿐 아니라 서술자와 독자 차원의 가치판단이 각각 이루어지거나 비슷한 경유로 흐르게 되기도 한다.

인물의 갈등구조와 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작중인물 혹은 서술자와 함께 호흡한 학습자는 인물의 선택이 갖는 결과에 대해 개인적 가치관과 도덕성을 잣대로 평가하게 되며 작중인물의 갈등과 변모를 보면서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갈등에 의한 선택으로 작중인물의 도덕성과 가치관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의 여부, 작중인물의 수동적 행태 혹은 능동적 행태 등이 드러나며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갈등상황의 해결구조를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황순원의 「학」⁷⁸⁾은 1953년 6·25전쟁이 막 휴전으로 치닫던 시기에 쓰여진 작품이다. 단적으로 같이 자란 두 친구가 6·25라는 민족적 비극에 의해서 서로 반대편으로 갈라지나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미가 두 사람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주는 내용으로 주인공 성삼이의 갈등 해결방식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임시 치안대 사무소로 쓰고 있는 집 앞에 이르니, 웬 청년 하나가 포승에 묶여 있다.

이 마을에서 처음 보다시피 하는 젊은이라, 가까이 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바로 어려서 단짝 동무였던 덕재가 아니냐.

천태에서 같이 온 치안대원에게 어찌된 일이나고 물었다.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지낸 농인데 지금 자기 집에 잠복해 있는 걸 붙들어 왔다는 것이다. 성삼이는 거기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78) 황순원, 「학」, 『한국 단편소설집』, 민음사, 1990.

덕재를 청단까지 호송하기로 되었다. 치안 대원 청년 하나이 데리고 가기로 했다.

성삼이가 다 탄 담배꼬투리에서 새로 담뱃불을 땡겨가지고 일어섰다.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요.”

덕재는 한결같이 외면한 채 성삼이 쪽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동구밖을 벗어났다.

성삼이는 연거푸 담배만 피웠다. 담배맛은 몰랐다. 그저 연기만 기껏 빨았다 내뿜곤 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 덕재 녀석도 담배 생각이 나려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서 어른들 몰래 담모통이에서 호박잎 담배를 나눠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러나 오늘 이놈에게 담배를 권하다니 될 말이나.

(중략)

성삼이는 새로 불을 땡겨 문 담배를 내던졌다. 그리고는 이 덕재 자식을 데리고 가는 동안 다시 담배는 붙여 물지 않으리라 마음먹는다.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 고개는 해방 전전에 성삼이가 삼팔 이남 천대 부근으로 이사가기까지 덕재와 더불어 늘 꿀 베러 넘나들던 고개다.

성삼이는 외락 저도 모를 화가 치밀어 고향을 질렀다.

“이 자식아, 그 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

그제야 덕재가 힐끗 이쪽을 바라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거둔다.

“이 자식아, 사람 몇이나 죽였어?”

덕재가 다시 고개를 이리로 돌린다. 그리고는 성삼이를 쏘아본다. 그 눈이 점점 빛을 더해 가며 제법 수염발 잡힌 입언저리가 실쭙거리더니,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 봤니?”

이자식이! 그러면서도 성삼이의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막혔던 무엇이 풀려 내리는 것만 같은. 그러나,

“농민동맹 부위원장 쯤 지낸 놈이 왜 피하지 않구 있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마구 잠복해 있는 거지?”

덕재는 말이 없다.

“바른대루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구 숨어 있었냐?”

그냥 덕재는 잠잠히 걷기만 한다. 역시 이자식 속이 풀리는 모양이구나. 이런 때 한 번 낫씩을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한 채 다시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성삼이는 허리에 찬 권총을 잡으며,

“번명은 할려구두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의 자식인데다가 근농꾼이라구 해서 농민동맹 부위원장 됐든 게 죽을 죄라면 하는 수 없는 거구,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중략)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 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가을 햇볕이 자꾸 이마에 따가웠다. 참 오늘 같은 날은 타작하기에 꼭 알맞은 날씨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다 내려온 곳에서 성삼이는 주춤 발걸음을 멈추었다.

저쪽 벌 한가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섰는 것 같은 것은 틀림없는 학떼였다. 소위 삼팔선 완충지대가 되었던 이곳.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동안에도 이들 학들만은 전대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중략)

“애,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구 가자.”

성삼이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덕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내 이걸루 올가밀 만들어 놀께 너 학을 몰아오너라.”

포승줄을 풀어 쥐더니, 어느 새 잡풀 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대번 덕재의 얼굴에서 핏기가 걷혔다. 좀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떡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저만치서 성삼이가 핵 고개를 돌렸다.

“어이, 왜 멍추같이 서 있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 오너라.”

그제서야 덕재도 무엇을 깨달은 듯 잡풀 새를 기기 시작했다.

때마침 단정학 두세 마리가 높푸른 가을하늘에 곧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위의 작품 「학」은 6·25로 인해 쓸쓸하고 삭막한 분위기로 변해 버린 마을을 작품의 발단부에 설정했다. 이것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 분단과 동족 상잔의 참화를 겪은 비극의 현장으로서 ‘마을’은 이 나라 강토를 대유(代喻)하고 있다. 여기에 6·25라는 비극의 시대가 무한한 자유를 동경하던 유년 시절과 대립되어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고개를 중심으로 한 공간의 변화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이완되는 독특한 구조형태를 보인다.

소년들이 학을 풀어 주었던 과거의 에피소드는 ‘이데올로기에 왜곡된 인간을 구원하는 힘은 인간의 순수한 마음 외에는 없다’는 작가 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 즉, 학은 우정 회복의 매체가 되어 손상된 우정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이념적 갈등이 빚은 인간성의 파괴와 상실을 통한 갈등양상

을 고결함 때문에 길조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애착을 받는 '학(鶴)'을 중심으로 풀어나갔다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작품 전광용의 「꺼삐딴리」⁷⁹⁾의 경우 주인공은 전형적이고 평면적이며 출세 지향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반성하고 있다. 또한 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을 비판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수법과 몽타주 수법을 쓰고 있다.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머리에 꺾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졌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꾸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와 적기(赤旗)를 들고 환성을 울리고 있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혜숙이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혜숙이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꺾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에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혜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 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들을 끄집어내었다.

‘국어 상용(國語(日語) 상용)의 가(家)’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 둔 것을 그 동안 깜박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의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종잇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뜻뜻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의 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 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

79)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려 의사 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마누라의 솔선 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 주었기에 이 종잇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 총력 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하 소리가 떠올랐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로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리고는 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무슨 점치가 모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그는 손금고가 들어 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⁸⁰⁾

이 작품은 변질적인 순응주의자 즉 카멜레온 같은 인물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파, 해방 직후의 북한에서는 친소파, 월남 후에는 친미파로 시류에 편승해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노예적 속성을 비판함과 아울러 민족사의 비극을 암시한다.

이렇듯 작중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었을 경우 그것의 결과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매우 적극성을 띄게 되는데 인물의 도덕성 여부를 평가하기 이전에 그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문을 독자 스스로 갖게 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특성상 해결되지 않은 -혹은 진행 중인- 갈등 상황에 학습자를 참여시킴으로써 그것이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위배됨이 없이 공공의 실천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독자로 하여금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작중인물의 선택이 학습자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는 일도 좋은 지도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정 형식의 틀을 설정한 뒤 제목과 배경, 초기 제시된 작중인물의 성격 등을 미루어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고 실제 작품의 결과와 비교해

80) 전광용, 「꺼삐딴리」, 박정수 편저, 『한국 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pp.158~160.

보는 방안도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의 인물 유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지도방법으로 ①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신분 ② 인물의 형상화 ③ 인물의 변모과정 ④ 갈등의 해결 등이 제시 되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지도 모형은 다음과 같다.

예시 작품) 김동인 「감자」

1) 읽기 전 활동

다음은 김동인의 소설 「감자」이다. 소설을 읽기에 앞서 생각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작가의 개관 살펴보기
- 작품의 제목만으로 작품의 내용 유추해 보기
- 작품의 주요인물의 이름만으로 작중인물의 성격 유추해보기
- 작품 서두에 나타나는 사회적 시대적 배경과 인물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장이나 단어 가려내기 (작품의 배경과 인물의 신분)
- 작품의 서두 부분에 제시되는 내용을 통해 인물의 성격 파악해 보기 (인물의 형상화)

2) 읽은 후 활동

- ① 전체적인 줄거리 요약해보기

표 2. 줄거리 요약 순서

줄거리 요약 순서 (김동인의 「감자」)	
화소 분석하기 (소설에서 제시된 플롯의 순차대로)	1. 복녀,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남. 2. 복녀, 열다섯 되던 해에 동네 할아버에게 시집감. 3. 복녀부부, 남편의 게으름으로 동네, 처가에 신용을 잃음.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칠성문 밖 빈민굴로 밀려 나오게 됨. 5. 복녀, 송충이 잡는 일에 인부로 뽑힘. 6. 하루 삼십 이전씩의 품삯을 받음. 7. 복녀, 현장에서의 이상한 분위기 감지함 (몇몇 인부가 일은 않고 놀면서도 몇배의 품삯을 챙겨감) 8. 감독이 복녀를 부름. 9. 복녀, 감독을 따라 감. 10. 복녀,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가 됨. 11. 복녀, 외모에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함. 12. 복녀의 남편, 이를 묵인 하기 시작함. 13. 복녀, 중국인 채마밭에서 감자 도둑질 해 옴. 14. 복녀, 채마밭에서 고구마를 훔치다 주인 왕서방에게 잡힘. 15. 복녀, 왕서방 집에 끌려감. 16. 한시간 뒤 왕서방 집에서 나옴. 17. 복녀, 남편에게 왕서방과의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함. 18. 왕서방, 수시로 복녀를 찾아오기 시작함. 19. 복녀의 부처, 빈민굴에서 부자가 됨. 20. 왕서방, 돈을 주고 처녀를 들임. 21. 복녀, 왕서방을 질투하기 시작함. 22. 왕서방이 신부를 들이던 날 복녀가 왕서방을 찾아감. 23. 복녀, 왕서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나 거절당함. 24. 복녀, 감정이 격해지며 들고 있던 낫을 휘두름. 25. 왕서방, 낫을 빼앗아 복녀를 내리침. 26. 왕서방과 복녀 남편 사이에 교섭이 오고감. 27. 복녀의 시체가 남편의 집으로 옮겨짐. 28. 복녀의 시체를 두고 거래가 이뤄짐(남편, 왕서방, 의사) 29. 복녀, 뇌일혈로 죽었다는 진단을 받음.
<p style="text-align: center;">줄거리 잡기 (학습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해석 개입)</p>	<p>원래 가난하지만 정직한 농가(몰락한 선비의 후예요, 비교적 엄한 가율(家律)을 지님)에서 자라난 주인공 복녀(福女)는 막연하나마 도덕이라는 것에 대한 저품(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녀는 15세 나이에 20년 연상의 동네 할아버지에게 80원에 팔려 시집을 가게 된다. 그러나 남편이 무능하고 게을러 사느라고 노력도 했지만 이농민 신세가 되</p>

	<p>어 평양에서 행랑살이를 전전하다 결국 최악의 소굴인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의 주민이 된다.</p> <p>거기서 복녀는 배고픔에 쫓겨 거지 행각을 시작하게 되고, 당국에서 빈민 구제를 겸하여 시행한 기자묘 술밭의 송충이잡이 일에 나가게 된 복녀는 감독에게 몸을 팔아 "일 안 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가 된다. 이후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을 안 그녀는 거지들에게 몸을 판다.</p> <p>어느 날 중국인 감자 밭에서 감자를 훔치다 주인 왕서방에게 끌려 들어가 몸을 주고 돈도 받게 된다. 여기서 복녀는 '삶의 비결'이라도 배운 듯 터놓고 매음(賣淫)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는 중국인 왕 서방의 정부(情婦)로까지 전락하고 만다. 그후 계속 왕서방과 관계가 지속되고, 이리하여 빈민굴의 부자(?)가 된 복녀는 왕 서방이 돈 100원을 주고 치녀 마누라를 사오게 되자 질투를 느껴 낫을 들고 신방에 뛰어 들었다가 도리어 왕서방이 휘두른 낫에 찔려 죽게 된다.</p> <p>복녀의 시체를 두고 남편, 왕 서방, 한의사 간에 돈 거래가 이루어져 돈 30원에 매수된 남편의 동조 아래 뇌일혈로 죽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복녀는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p>
<p>줄거리요약을 통한 발문하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자]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떠한가? 2. 작중인물(복녀, 남편, 왕서방, 감독)의 성격은 각각 어떠한가? 3. 이 작품에서 주된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4. 복녀의 성격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5. 복녀의 파멸, 곧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작용한 요인은 무엇인가?

- ② 작중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정리해 보기 (그림 생략)
- ③ 작품을 읽기 전 생각했던 「감자」라는 제목의 이미지와 읽고 난 후의 느낌 비교해보기 (형상화를 통한 작품의 이해)
- 작품 초기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보기 (인물의 변모과정 이해)

④ 작중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 혹은 단어 찾기 (인물의 형상화 과정 이해)

표 3. 인물의 형상화 관련

작중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장, 단어	
복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 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가재문 다기, 원 것도 못갈까.” -복녀의 숙인 얼굴은 더욱 빨강게 되었다. -복녀는 다만 코웃음만 쳤다. -무서운 눈으로 흘겨보면서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는 극도로 게으른 사람이었다 -그는 그 동네에서는 밥을 못 얻으리만큼 인심과 신용을 잃고 말았다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전춧집에는 가져도 안가고 혼자 먹어 버리곤 하였다 -그의 남편은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얼씬얼씬 웃고 있었다 -복녀의 남편은 눈치를 채고 밖으로 나간다

⑤ 작품의 배경과 관련한 단어나 문장 찾아보기

표 4. 작품 배경 관련

<p>작품의 공간적 배경</p>	<p>-칠성문 밖 빈민굴 -평양 성안 -연광정, 대동강 -기자묘 솔밭 -평양루 -중국인의 채마밭 -왕서방의 집 -복녀 남편의 집</p>
------------------------------	---

⑥ 작중 인물의 갈등상황 전개 과정 이해하기

표 5. 갈등 상황 전개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칠성문 밖 빈민굴(도덕성과 윤리 의식이 부재(不在)하는 정상적인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공간)에서의 생활 ⇒ 이후의 사건에 대한 어떤 예감 제공(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등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이므로) 2. 복녀에게 닥쳐온 환경의 변화와 점진적인 타락 (성에 눈 뜨) 3. 새 장가를 드는 왕서방에 대한 강한 질투 ⇒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복선 역할을 함. 4. 복녀가 왕서방의 신방에 뛰어드나 도리어 자신의 낮에 살해당함. 5. 복녀의 주검을 들어싼 비정한 돈 거래

⑦ 서술자(작가)의 시점과 태도 및 의도 분석해보기

(서술자가 작중 인물 중 어느 편에서 무엇을 비판하려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도)

표 6. 서술자의 시점 및 태도 분석

1. 작가의 시점 -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부분적으로 전지적 작가의 개입이 드러나기도 함.)
2. 작품에서 보여지는 작가 의식 - 인간의 삶은 그 자신의 내부 의지가 아니라 주어진 외부 환경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3. 복녀(福女)라는 호칭의 의미 - 반어적 명명법을 의도함.
4. 복녀의 파멸, 곧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해 작가가 제시한 요인
- 가난, 애욕
5. 이 작품에서 보여 준 현실 인식의 한계 - 가난과 무지로 인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 여인이 결국 치정으로 살해되는 파멸의 삶은 현실 상황에 지배되는 인간의 운명을 보이지만, 그 비극의 원인으로 제시된 빈곤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작가 의식이 미약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IV. 결 론

소설이란 허구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나 그 배경과 작중인물의 설정은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인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인물과의 동일시를 경험하게 하며 일종의 대리만족과 함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규범 가치에 대한 직간접적 교훈도 터득하게 된다.

소설을 읽으면서 작중인물의 유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들의 성격과 작품 안에서의 역할, 작품의 배경과 환경 등을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독자들은 한 작가의 전 작품 내용을 기억 한다기보다 그것의 근간을 이뤘던 작중인물의 행위나 성격 등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삶의 형태나 새로운 경험을 배우기도 하고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틀을 형성하기도 하는 만큼, 작중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도는 보다 발전적이고 다양한 방법적 독서지도와 함께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인물군상에 대한 이해를 터득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게 된다.

본고에서 다뤄진 작중인물의 유형파악 및 범주는 크게 네 가지 분류로 제시되었다.

성격변화에 따른 분류 중 평면적 인물이란 소설 전 과정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이고, 입체적 인물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평면적 인물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단일한 개념이나 성질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물이다. 즉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문장만으로도 인물의 성격 유추를 어느 정도 가능케 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구태여 다른 배경이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지 않고도 인물이 지니는 특이성으로 인해 학습자는 너무도 쉽게 심적영상(Mental Image)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입체적 인물 유형은 등장인물이 처한 환경이나 배경, 사건 등에 영향을 받아 인물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인데 독자 스스로 평면적 인물을 한두 가지의 힌트만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입체적 인물을 구별해내고 설명하

는 일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입체적 인물의 경우 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도 인물이 겪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물의 유형을 변별할 수 있는 부연 설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작품의 주도적 이념적 측면에서 어떤 인물이 긍정적 존재인가 부정적 존재인가 하는 가치판단의 기준은 작품 내부적으로 볼 때 그것을 읽는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서술태도나 의도하고자 하는 관념, 작품의 진행 방향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즉 독자는 개인적인 윤리의식이나 도덕률과는 별개로 작가 혹은 서술자가 의도하는 작품 내부의 논리적 표출에 의한 이념을 그 작품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러한 기준에 의해 긍정적 인물 유형(주동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 유형(반동적 인물)으로 분류된다. 가령 작품의 주도적 이념이 유교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작품 내에서는 적어도 성리학의 이념에 합당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긍정적 인물이고 그러한 이념에 반하는 자는 부정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기질적 특성에 의하면 내향성은 객관 세계보다 주관 세계를, 세계보다는 자아에 관심을 보이는 인물로서 침묵과 고독의 이미지와 잘 부합하고 극단의 경우는 지나친 아집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외향성은 대체로 사교적이고 밝으며 타인에 대해 호의와 호감을 보이는데 이들 성향의 분류 기준에는 인간의 사유, 감정, 감각, 직관의 네 단계의 능력심리와 연결된다.

또한 전형적 인물은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관련성을 지닌 채 계급적 특질이나 계급이 지니는 성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현실성(reality)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전형적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 리얼리즘 소설이 자주 이용되는데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역사적 환경 상황은 인물의 행위 있어 보다 신뢰를 갖게 하고 전형적 상황에서의 인물의 형상화 역시 높은 현실성을 토대로 전형적 인물의 특징적 설명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기본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교과서 수록 소설들을 예로 들어 소설 작중인물의 지도방안을 좀 더 현실화 하였으며 특히 작중인물 유형의 변화에 주목하여 그것의 배경이 되는 원인이 무

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으로는,

II장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물 유형별 분류 기준을 제시한 후 그에 적합한 교과서 내의 작품을 선정, 예문을 통한 실제적인 유형 분류와 그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한 작중인물의 유형별 분류와 관련 실제 학습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중인물 지도방안을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이론의 고찰에 머무는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학습자가 작품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참여도 높은 기회의 제공과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습자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독서의지를 고양하는데 기여할만한 성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모형적 지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간의 상호 교환적 수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논문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중인물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정확한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상 힘든 작업이었으며 그로 인해 부득이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설정을 전제로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중복되는 사례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둘째, 작중인물의 유형 분류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자칫 소설교육의 전부인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셋째, 작중인물의 유형을 분류, 설명함에 있어 현행 교과서 내의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구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고 한정된 작품 내에서 모든 유형을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상 난관이었기에 표면적으로 확실히 두드러지는 유형의 작품만을 선정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실질적인 인물 지도 방법에 있어 앞서 살펴본 인물 유형 분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계를 나타냈으며 지도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 다룬 네 가지 범주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대개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의 범주를 아우르고자 했으며 차후로 범주와 유형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에서의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1』,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1』,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2-2』,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1』,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3-2』, 교육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제 7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 구인환·김홍규, 『고등학교 문학·상』, 한샘출판, 1995.
- 권영민, 『고등학교 문학·상』, 지학사, 1995.
- 오세영·서대석, 『고등학교 문학·하』, 천재교육, 1995.
- 박정수, 『한국단편소설집』, 서정출판사, 1993.
- 염상섭, 『삼대』, 문학 사상사, 1991.
- 최만식, 『탁류』, 창작과 비평사, 1991.
- 채만식, 『태평천하』, 창작과 비평사, 1991.
- 염상섭, 『두과산』, 한국 소설문학대계, 36권, 동아출판사, 1995.

2. 저서 및 논문

- 구인환, 「소설교육의 방법」, 『난대이응백박사 고회기념논문집』, 한샘, 1992.
- 구인환, 『한국근대소설연구』, 삼영사, 1977.
- 김동환, 「담화이론의 문학교육적 적용의 전제와 가능성」, 『논문집 제45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 김동환, 「소설의 다성성과 그 문학교육적 의미」, 『논문집 제43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1. 9.
- 김상옥,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96.
- 김용성, 『한국근대소설의 인물연구』, 도서출판 인동, 1986.
- 김중신, 『소설감상방법론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5.
- 김대행,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1992.
- 박인기, 「문학텍스트의 종합적 감상을 위한 교육TV 프로그램 설계 방략」, 『국어교육 제65-66호』, 1989.7
- 우한용, 「문학교육과 담론방법의 원용」, 『국어교육, 제75-76호』, 1991.
- 우한용, 「문학교육과 작가론」, 『국어교육 제55-56호』, 1986.
- 우한용,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 우한용, 『현대소설담론연구』, 삼지원, 1996.
- 이규정, 『현대소설의 이론과 기법』, 박이정, 1998.
- 이대규, 『국어교과의 이론과 교육』, 교육과학사, 1995.
-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 김상옥, 「현실주의론의 소설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
- 남유진, 「소설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박대호, 「소설의 세계관 이해와 그 문학교육적 적용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0.
- 박명옥, 「소설의 인물 지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박인기, 「문학교육의 목표설정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5.
- 박혜경, 「소설작품의 학습지도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서미선, 「소설의 구조적 수업방략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 서예인, 「인물지도의 방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손예운, 「화자 서술의 특성을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3.
- 위남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 형상화 양상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이은순, 「중학교 소설교육 교재의 인물유형 분석과 수용양상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이정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 형상화 양상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이향숙,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 정선주, 「소설교육 평가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3.
- 정유경,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의 인물 유형 및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정충기,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 정체성에 관하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진선호,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소설독해지도 방법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최인자, 「작중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93.

홍준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 분석」,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2.

하용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인물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논문,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to novel character

Han, Ji Sun

Major in Korea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suggest of character understanding standard and to categorize the each type character who appears in work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substantial target of novel education. So, search for physical method to substantial novel teaching method that both be possible independent application of Student himself/herself, and be possible transfer to active reader.

For efficient performance, rather physical and applicable categorize the character who appears have done focused to works of middle and high school Korean textbooks, and investigated the teaching method to categorize, understanding of character who appears in works by oneself's standard. Therefore, not stop to simple research, but search for direct applicable practical strategy in education field.

Major Method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classification standard.

First, standard category for understanding of character who appears in works classified to ① changer of personality, ② principle ideology of work, ③ character's dispositional property, and ④ stereotype of character. Furthermore, position and importance of character who appears in works pointed out in novel education.

Second, teaching method to novel character in works more actualized by exemplify of textbook novel. Specially, causes of character type change was intensive considered in this study.

Third, research goal was focused to learning cognition process that applying frame concept of learner's cognition structure for research about teaching character in the spot. And, teaching method for character type in novel was investigated as categorize to ① background of works and character's status, ② configuration of character, ③ character's transfiguration process, and ④ solution of conflict situation.

Fourth, through write out 'action before reading' and 'action after reading' as specific example for physical teaching method, teaching model was suggested for that participation of learner to reading positively and actively, and accomplishment mutual opinion exchange between teacher and learner, between learner and learner,

Like this, based on preceding research, this research's four category was shaped from character's category of Korean and Literature subject in middle and high school that directly contact with learners.

Through Character teaching in novel education ; learners can internalize the value and enhance basic moral principles as indirect experience to character's conduct and personality ; Character teaching influenced on learner's the him/herself and personality by offering imitable model. Therefore, teaching supplementation needed for assist learner to the right value judgement and understanding.

To understanding of novel, learner him/herself has first responsibility after all, but teacher has responsibility to suggestion of method and process for learner's understanding and analysis that matching with his/he level.

Consequently, type analysis and concrete teaching method of this research has importance as practically applicable teaching method in the field education.